



잡여·협력·영광

서울大同會報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04년 10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319호

http://www.snuu.or.kr

등록번호 060-604-0011
전화 한 통화로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孫一根 / 편집주간 許 珪 /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①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 FAX: 703-0755

모교 최초로 채용박람회 열어...졸업생 취업 큰 도움



이렇게 우수 R&D인력 채용을 위해 모교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이공계관'



일반사무직 인력 채용을 위해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무수기업관'이 열렸다.

〈관련기사 18면〉

서울대 가족을 초대합니다

모교 개교기념일(10월 15일)에 즈음하여 서울대인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제26회 HOME COMING DAY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를 오는 10월 17일 거행합니다.

◇일 시: 2004년 10월 17일 (금) 오전 9시

◇집합장소: 모교 관악캠퍼스 대문동장

◇참가대상: 동문 및 동문 가족

◇참가비용: 없음

◇제공물품: 도시락, 식음료, 都安牌동문 CD 등

◇경 품: 소형자동차(林光洙장 제공)와

대량의 선물 추첨

◇문 의: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021702-2233

※ 우천시 보고 문화관 대강당에서 숙합니다.

관악출주

취업시즌을 맞아 '2004 우수인력 채용박람회'가 9월 13~14일 이틀간 서울대에서 열렸다. 서울대 개교 이래 대규모 취업 행사가 열린 것은 처음으로, 그만큼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서 각 언론이 의미 있게 보도했다. 서울대 졸업생만 있으면 취직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던 때가 있었는데, 이런 옛날 얘기가 없다는 말은 스스럼없이 따른다.

이는 구체적 수치로 뒷받침된다. 서울대가 지난 8월 발표한 통계지침에 따르면 서울대 졸업생 중 군 입대자, 대학원 진학자를 제외한 물 상반기 순수 취업률은 45.1%였다고 한다. 2002년 50.0%, 2003년 46.5%에 걸쭉 낮아진 수치다.

거코 이래 첫 채용박람회 소식을 접하며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그만큼 빠르고, 이런 흐름에 보조를 맞추려는 각학종 움직임도 빨라졌다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 대학이 고교한 상아탑임을 내세우던 시대는 지났다. 사회가 대학에 요구하는 내용도 달라

급변하는 사회

보조 맞추기

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국경 개념이 없어지고 무한 경쟁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인재들 기업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 능력 있는 인재들이 단기간에 육성되는 것은 아니다. 더 학이 질적으로 성장하고 교육내용도 좀더 실질적으로 돼야겠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이 자기 계획을 꾸준히 해서는 안된다.

대단 대학이, 그것도 서울대가 주업을 준비하는 곳으로 너무 빠리는 것 아니냐는 훌륭한 여론도 한편으로 남는다. 젊은 지성을 대표한 우리 사회와 민족의 위난을 진지하게 고뇌하는 목도 반향하야 할 서울대인들이 자못 사이가 좁아져 개인의 문제에만 골몰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개인으 성취는, 그것이 사회 발전과 국가 융성에 기여하고 상급 직장을 할 때 훨씬 더 빛나고 가치가 있다.

졸업장이 앞날을 보장하지 않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학력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지만 진부는 아니다. 젊은 나이에 명문대학교에 입학하는 '성적' 순으로 인생이 결정된다면 얼마나 한탄 나지 않는 세상이 될 것인가. 비록 출발이 뒤지더라도 더 열심히 노력해 대성하고 인격을 완성해 가는 것이 훨씬 아름다운 모습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서울대인들이 지금의 노력을 뒷받치려면 훨씬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元)

만든 사람: 본설위원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樹奎, 李烈均, 南仲仁, 金顯錫, 金好復, 宋顯赫, 丘月機, 洪性萬, 朴明珍, 李成度, 安炳燾, 李元龍, 安國正, 李慶勳, 金鍾勳, 金仁上, 徐玉植, 高永才, 韓基永, 朴時龍, 辛京武, 姜天錫, 李元榮, 李昌龍, 朴聖榮, 朴勝榮, 金顯國, 편집장 安興燾, 편집기자 朴宰宇, 衣智媛, 金南柱, 광고부장 金仁鶴

새 회관 명칭 '장학빌딩'으로 결정

용역업체 (주)간삼파트너스 선정



좌로부터 許 璠·孔大植·金仁圭·洪性大·孫一根·林光洙·辛東一·尹勳榮 등은

본회 회관건립위원회(위원장 林光洙)는 지난 9월 22일 한국언론재단 무궁화홀에서 모임을 갖고 동원회관 부지의 구역지정 변경안과 관련 담당할 용역업체로 (주)간삼파트너스 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선정했다.

또 새 회관을 인근대지에 대한 추가매입 없이 마포 현 대지(5백 18평) 위에 짓기로 하고 명칭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장학빌딩'(SNUA Scholarship Building)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회관건립위원회 명칭도 장학빌딩 건립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

許 璠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용역업체 심사 결과 보고, 신임 위원 위촉, 건립기금 확보 방안 논의, 장학빌딩위원회 조직 보완 등으로 진행됐다.

본회는 지난 9월 1일 제2차 회의 결과(318호 2면 기사 참조)에 따라 9일 동창회관에서 본회 임원 및 관계 관공사에서 추천받은 6개 업체 대표를 모아 용역내용을 설명하고 18일까지 제안서와 입찰서를 받았다. 이 가운데 모교 건축학과 李柱孝(83년工大)교수와 3명의 전문가들이 21일, 22일 양 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 실적·용역비·인근면에서 앞선 간삼파트너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간삼파트너스는 서울 대치동 포스

코센터, 모교 대학원 연구동을 설계한 업체로 교육 연구시설과 업무용 대학건물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용역업체 선정에 이어 KBS 金仁圭(73년 文理대)이사를 장학빌딩 건립위원회 총보좌관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총보 부위원장도 金仁圭등문

林위원장은 "회관건립을 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총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동문들에게 회관건립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임 총보위원장은 "새 회관 명칭을 동창회관으로 할 게 아니라 동문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고 각 기업에서도 장학사업을 위해 참여할 수 있도록 컨셉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며 "동창회관이 장학사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만큼 '장학빌딩'으로 하는 게 어떨까"는 의견을 냈다. 이 제안은 참석한 위원들의 큰 호응을 받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기금 모금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林위원장은 "건립기금 모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동문을 동참시키는 일"이라며 "그 가운데 거여

을 기부하는 동문에게는 그에 따른 명예를 보장하고 임대수입금 일부를 은행금리 이상 개인 장학기금에 할애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립기금은 건물을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부자의 장학기금으로 보존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洪性大부위원장은 "기부자의 이름을 기념한 층이나 통을 만들 경우 실제 입주하는 기업(혹은 개인)의 거부감도 예상되며 그 반대로 기부자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업체가 들어올 경우 그 역시 기부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따라서 별도로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는 방법을 찾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해 모금 유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장학빌딩 건립위원회 조직 구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본회 부회장, 단과대학 동창회장, 관악회 이사 등으로 이뤄진 추진위원회와 심의추진위원회, 본회 이사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빌딩건립과 관련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지도위원을 선임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동문 및 모교 재학생과 국내의 건축설계사무소 총사자들을 대상으로 장학빌딩 조감도를 공모하기로 했다.

10월 17일 모교서 동산대회 개최

본회 林光洙회장 자동차 협찬

'오나라' 부른 가수 이안 출연

본회(회장 林光洙)는 오는 10월 17일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에서 홈커밍데이를 겸한 서울대 가족 친목 동산대회를 개최한다. <이런 일립 참조>

본회는 매년 5천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여해 관악산을 등반한 후 인양 농생대 관악수목원 잔디밭에서 친목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참석한 서울대인을 위해 도시락·음료 준비는 물론 천막·자동 화장실 차량 설치, 등산로 정비 등 세세한 부분까지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행사를 위해 본회 林光

洙회장이 소형 자동차를 협찬하고 여러 동문들이 소환 스투터, 해외 여행권, 김치냉장고, 디지털TV 등 각종 경품을 출연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드라마 '대장금'의 주제가 '오나라'를 불러 화제가 된 국악과 출신 가수 이안(04년 音大卒·본명 이동희)등문이 특별 초청돼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가족과 함께 흥겨운 여흥을 즐기면서 그동안 잊고 지내던 선·후배, 동기들과 재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지장학금 추가 출연 잇달아

李吉女총장 1억원

鄭哲圭이사장 3천만원



지난 9월 2일 경원대 李吉女·본회 부회장·의대 동창회장·사



지난 9월 20일 신양문 鄭哲圭(52년工大卒·관악회 이사·사진)

진)총장이 본회에 특지장학회 기금으로 1억원(2구좌)을 추가로 출연했다.

지난 1996년 특지장학금 1억원을 출연해 '李吉女 특지장학회'를 설립한 李總장은 1996년 1학기부터 2004년 2학기까지 총 39명의 의대 재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왔다. 이번 추가 출연으로 장학기금이 2억원에 이르게 된 '李吉女 특지장학회'는 앞으로 더 많은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게 됐다.

이사장이 특지장학회 기금으로 본회에 3천만원을 추가로 출연, '鄭哲圭 특지장학회' 명의로 총 2억원의 장학기금을 운영하게 됐다.

1999년 12월, 2000년 12월, 2004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본회에 1억7천만원을 쾌척, '鄭哲圭 특지장학회'를 운영해온 鄭이사장은 그동안 모교 공대 재학생 20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해왔으며, 이번 추가 출연으로 더 많은 공대 재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돌아가게 됐다.

의과대학

모교 의학도서관에 도서 기증



의과대학중점학 학술연구재단(이사장 李吉女)은 지난 9월 13일 모교 의학도서관(관장 金典) 업무실에서 '2004년도 의학도서 기증식'을 개최했다.

이날 李이사장이 금관장에게 기증도서 목록과 함께 의학도서 84종 86권을 전달했다. 이어 금관장이 李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

으며, 의학도서관 발전장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金典(61년卒) 회관담당 부회장, 尹正賢(65년卒) 기획담당 부회장 및 모교 土圭 彰(79년卒)의대 학생, 洪性大(79년卒)·金玄鉉(81년卒)·韓鍾九(82년卒)교수 등이 참석했다.

(南)

제1회 서울대 동문 바둑대회

11월 14일 일요일
모교 종합체육관서

- ◇일 시: 2004년 11월 14일 (일) 09:00~18:00
- ◇장 소: 서울대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
- ◇참가대상: 서울대 동문, 교직원 및 재학생 (단, 아예 7급 이상)
- ◇진행 방식: ①단체전(1조 3인으로 구성) ②개인전(實力別 6명 이내)
- ◇참가비: 없음
- ◇상장내역: 1천만원에 해당하는 상품
- ◇연락처: 전화 021702-2233 FAX 021703-0755
- 후원: 11월 6월만 공적, 스포스 리그

후대회 일정이나 운영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서울대총동창회·서울대학교 / 주관: (재)한국기원

부산지부

연수회서 활성화 방안 논의

부산지부동창회(회장 河基成)는 최근 제주도 사립대에서 집행부 하계연수회를 개최했다.

'부산동창회 활성화 발전의 비전 만들기'와 '친교와 우정의 공동체 만들기'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수회는 총 22명이 참석, A·B·C 세 조로 나뉘어 동창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A조(조장 河基成·62년 商大卒)는 읍대 송년음악회 등 소규모 활성화와 어린이 음악캠프를 개최해 젊은 동문 가족을 유치하는 방안을 내었고 B조(조장 尹道重·62년 美大卒)에서는 '회원 배가 운동'을 펼치고 '동문고충처리 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의견을 내었다.

또한 동창회관 건립을 위해 장



기불편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개진됐다.

C조의 權維大(78년 齒大卒)조장은 "동창회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간의 관심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며 "경조사를 챙겨주고 안

부잔화를 자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한편 同會는 10월 17일 부산 초읍동 성지곡 수원지 학생 교육 문화관에서 동문 가족 등반대회 및 आय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리대 OB산악회

무즈타그아타 등반 보고

문리대 OB산악회(회장 曹圭浩)는 최근 서초동 과학기술회관 지하 제1회의실에서 지난 8월 1일 귀국한 무즈타그아타 등반대와 실크로드 탐사에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문리대 산악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이번 등반에는 曹圭浩(82년 人文大卒)등원이 무즈타그아타 1백50m를 넘겨주고 정상등극에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실크로드 탐사에는 등원-우름치-투루판-보스단 호수-쿠일라-타클라마칸 사막-카시 등을 돌며 방대한 양의 학술 자료를 축적했다.

무즈타그아타 등반에는 曹圭浩(66년 人文大卒·유림교과 대표) 대장 외 15명의 대원이, 실크로드 탐사에는 李道元(78년 自然大卒·모교 환경계획학과 교수)대장 외 20명의 대원이 참여했다.

도시환경교위정책과점

온라인 서비스 개시

도시환경교위정책과점장(회장 吳元錫)는 최근 매일 '도시환경정책소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환경대학원동창회 홈페이지(envisparc.snu.ac.kr/schoolMate)의 'E-환경인'이란 코너를 통해 제공되며 동문소식과 도시 환경정책분야 관련 정보가 매일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南)

- 비로 잡습니다 -

지난 318호(9월 15일자) 3면 특지장학금 수여식 기사 중 '金漢淑·韓榮특지장학금' 설립자를 청아치과병원 金漢淑이사장과 사무원 청아치과병원 韓榮원장으로 바로 잡습니다.

동문 작가 지상 전시회



金素璇作

'Taeguk & the tigers',
백자 혼합토,
D36.6×H6.6cm, 2004.

<작가약력>

- ▲67년 요코 미대 조소과 졸업
- ▲00년 일본 오사카 관사문화원 초대원, 일본 도쿄 백지위의 초신회원

- ▲01년 한국의 사계전, 일본 나고야 중문사관 초대원, 경기 광수드아트센터 관장초대원
- ▲02년 미국 시카고 노스미스턴 워크노아드 초대원
- ▲03년 자연의 소리전, 한국미술협회전
- ▲04년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서 개인전
- ▲현재 한국·일본·에티오피아·전염작가회·한국공감학회 회원, 호원회, 동부

상과대학

올해 회비 1억6백만원 모금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義)는 지난 9월 15일 한국언론재단 19층 배회실에서 고문 및 회장단 협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올해 회비납부 현황과 홈페이지(www.sangdae.com) 회원등록 현황 보고가 있었으며 '환상정학회' 특지장학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9월 13일 현재 회비는 1억6백82만원이 모금됐으며 홈페이지에는 1천6백84명의 회원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모임에는 金鍾秀(52년卒)·安台錫(53년卒)·沈炳求(53년卒)·金斗漢(56년卒)·李升雨(57년卒)



교무, 曹甲周(63년卒)·金承萬(63년卒)·俞鎭茂(66년卒)·崔幸禧(70년卒)·梁承雨(72년卒)·鄭均浩(73년卒)·申 煥(83년 社會大卒)·李英植(84년 經義大卒)·羅漢宇(86년 經義大卒)·부회장, 金哲賢(76년卒)·김사 등이 참석했다.

라고 밝혔다.

李회장은 "정확한 명부 발간을 위해 최근에 지백 및 직장 주소가 변경된 동문들은 동창회로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다. 학과동창회 명부는 2년마다 발행하고 있다.

(문의: 701-3470)

약학대학

새 명부 발간 예정

약학대학동창회(회장 李金鎔)는 2004년판 동창회 명부를 제작해 오는 11월까지 배포할 예정이



경영대학원

임원초청 추계 조찬세미나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金英大)는 지난 9월 14일 서울 인사동 대성그룹 본사 사옥에서 임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모교 경영대학 李秉基(80년 經大卒)교수는 '네트워크 경

제시대의 협상전략'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서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김회장은 모교 경영대학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윤호중·강희훈 군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환경대학원

청와대 金秉準정책실장 특강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郭大鶴)는 최근 서울 메리어트호텔 컨트리클럽에서 제17회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동문간의 정보교류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청와대 金秉準

정책실장이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는 郭大鶴회장, 모교 黃錫禧(80년 經大卒)교수를 비롯해 75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南)

식품·외식산업과정

10월 17일 음식경영대회

식품·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錢基永)는 오는 10월 17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중앙동 모교 사범대학부설 여자중학교에서 체육대회 및 음식경영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3668-7859)

법대 18회

10월 16일 졸업40주년 행사

법대 18회 동기회(회장 李文浩)는 오는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졸업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031-630-6100)



李元馥



서울대 야구사상 첫 승리
-가장 소중한 새 출발

제7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문·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이때의 내용으로 제7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 상 부 분	
참여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력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광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공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 1) 접수기간: 2005년 1월 31일
 - 2) 접 수 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702-2233·팩스: 703-0755)
4. 시상시기: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 (2005년 3월 18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林光洙·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一根

서울대를 세계 속의 초일류대학으로 키우려면...

최고 수준의 교육받은 국민 10%가 러시아 리드한다

본보는 교육의 평준화 정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인가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예측해 보기 위해 해외의 우수대학의 교육정책, 엘리트 교육 사례 등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이미 소개된 중국과 프랑스, 미국, 일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러시아의 교육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특별 좌담

⑤ 러시아의 대학교육

- 李志樹(87년 社會大學) 영지대 북한학과 교수, 모스크바대 졸업
- 黃星準(87년 社會大學)HMM 러시아비즈니스연구소센터 연구실장, 前조선일보 모스크바특파원
- 卞鉉台(89년 人文大學) 모교 언어문화학과 교수, 한국러시아문화학 이사
- 辛龍植(89년 社會大學)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스크바대 졸업
- 사 회: 李仁浩(55년 文理大學) 영지대 석좌교수, 前주러시아 대사

사 회: 지금 우리 나라에는 엘리트 정서가 사회전반을 지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서울대가 그동안 모든 특권을 독점해왔다는 시각이 사회전체에 광배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알 것입니다. 때문에 사회전반에서는 무언가 서울대를 손질하지 않으면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식의 편견 또한 상당히 강하

교육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변화기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싶습니다. 구소련 이후 러시아는 과거의 전통 아편에서 일부는 단절시키고 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승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기에 러시아 입시제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연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현재 러시아는 과거에 없

바에도 여러 단계의 검점 과정이 있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고 있지.

黃星準:李志樹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부금 입학제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자면 러시아에서 돈을 내고 들어가는 입학제도는 우리가 말하는 기부금 입학제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큰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대학 등록금을 내는 정도이고 돈을 내도 입학시험을 따로 봐야만 합니다.

이런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공립학교들이 거의 무상으로 교육시켰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무상으로 교육시킨 공립학교들이 돈을 받는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지만 최근 경제사정에 따라 시험을 보고 등록금을 내야만 입학할 수 있는 코스를 새로 만든 듯합니다. 러시아 대학의 입학 관행은 학과와 교수에게 맡겨져 있으며 시험 기간도 우리 나라처럼 단 하루 동안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있는 만큼 학생들을 선발했죠. 그러나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李志樹:계획에 따른 수요·공급의 원칙은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하게 요구되는 응용학문에서만 그 원칙이 지켜진 것이 아니라, 소수이지만 순수학문 분야에서도 적용이 됐기에 오늘날 러시아 순수학문의 명맥이 이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黃星準:우리 나라는 순수 학문 분야에서 대폭도 없이 무조건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있는 실정인데 러시아의 경우, 기령 동양학 연구소를 설립한다면 몇 명의 통역하는 인원, 연구 인력 등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산출해 대학에서 입학생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취업걱정 없이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辛龍植:구소련 시절에는 인구의 13%를 엘리트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엘리트의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왔습니다. 국가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이공계에 폭 넓은 인재 배정이 필요했지만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기초 과학과 순수 학문에 제한된 인원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이공계와



李仁浩석좌교수

李志樹교수

黃星準실장

卞鉉台교수

辛龍植교수

게 유무에 따릅니다.

그동안 동양학회가 이런 맥락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사회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시대와 변화기를 거치면서 교육정책의 변화, 특히 고교인재 양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러시아 인재교육의 기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卞鉉台:제가 러시아에서 유학한 당시 인상 깊었던 점은 모스크바대, 페테르부르크 대 등의 우수한 대학이 교육기관이자 연구기관으로서 양질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지만, 좀더 전문성을 띤 연구소나 아카데미 같은 연구기관들이 씬·다사 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들이 생산해 내는 연구성과 또한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성이 문제인데, 전문성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기에 대해서 각기 분화되어 있는 기관들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죠.

사 회: 그렇다면 러시아 대학원이나 교육기관들이 학생 선발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李志樹:이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러시아

“인문학 소양 교육 철저하게 시켜야”

전문성 갖춘 대학간에 상승효과 발휘

있던 기부금 입학제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 이런 새로운 제도의 변화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辛龍植:러시아 아이들은 3세까지 탁아소나 보육원에서 길러지며 4~6세까지 '유치원 교육'을 시킵니다. 이후 7세부터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속하는 초등학교, 5학년 부터 9학년까지 기초교육을 받게 됩니다. 9학년 정도되면 자신의 성격과 희망에 따라 전문대학 연구기관 혹은 중등직업전문학교, 영재 기숙학교 등으로 진로를 결정합니다. 이후 11학년까지 2년동안 일시 준비를 해서 각 분야별로 대학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입시는 다양한 형태의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또한 명문대학에 입학하려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데 모스크바대와 같은 명문대는 취업단, 즉 중등교육기관에서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이 아니라 약 2주에 걸쳐 단순 필답 고사기 아닌 심층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교육열이 대단한데 러시아에서도 소위 엘리트 집단에 갈수록 교육열은 상당히 치열합니다. 가정 외곽에 테스트를 할 경우 단순 필답고사에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면제 시험, 쓰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 회:여러분이 말씀하신 바로 소위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 소련 체제가 무너지기 전 교육제도는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감합니다.

黃星準:과거 소련 체제 하에서는 인재양성을 계획에 따른 수요·공급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문과 같은 경우 고급·중급·저급 수요 등으로 나눠서 인재를 뽑는데 고급 인재들은 대학의 교수요원, 중급은 학교 등으로 배정해 수요가

순수 학문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구소련이 무너진 지금도 그 맥락이 남아 국가가 아닌 자체 교육체제로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어 이공계와 순수학문 발전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李志樹:그런데 과거의 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辛龍植:과거 사회주의 시스템 하에서 과연 소련의 사회 경제체제와 교육체제가 어떻게 맞물려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현재 특강을 체제로 가지는 않지만 과거의 체제가 어떻게 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오늘날의 교육제도 변화와 개선에도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혁명 초기인 1918년 러시아는 학력에 상관없이 일정 나이만 되면 고등교육기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혁명의 광기가 단연할 당시의 제도로 결국 이러한 제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폐지했으며 우수한 사람을 기준으로 선별하게 됐습니다. 다만 교육과 점수를 배제할 수 없었기에 계급적 성분에 따라 차별이 있었지만 대체로 경쟁 입시 제도가 운영됐습니다.

80년대 이전 제도는 종합하는 부



이카데미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연령층에 대하여 15%를 넘지 않았습다. 그러나 상당한 정예를 골라 발탁하는 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성적이 가장 우수한 금메달을 받은 학생들은 시합을 보지 않고도 입학했었으며 은메달은 간혹 한 두 과목 시합을 치르고 각 지역 대학에 들어갔으며, 그 중에 최고 인재들은 모스크바대학 등에 선발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중앙집권적인 엘리트 교육이 이루어졌죠.

高萬善: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리자면, 금메달을 받은 경우 지방에 입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모스크바에 있는 명문대에 입학하려면 지역별로 금메달을 받은 많은 학생이 풀리기 때문에 또다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사 회: 맞습니다. 광대한 나라에서 학생들을 골라 보니 각 지역에서 금메달을 받은 학생들이 모스크바에 있는 명문대로 몰려 각 대학별로 최종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상당부분 교수의 재량으로 뽑기 때문에 부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가 입시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만 히루핀에 화일화된 입시지를 사행하고 있으나 이것이 종종 우리 사회의 부작용으로 남게 됩니다. 가령 요행이 너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평소 전교 1등을 하고도 오히려 자기보다 성적이 낮았던 학생이 입학하는 등의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下茲台: 러시아의 입시 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대학교 전공의 성격에 따라 입시를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부제라는 조건에서 학부생들을 단대 단위로 입학시키고 볼고 전공 진입은 2학년, 혹은 3학년에 하게 되는데 외국어문화학과 경우 이미 전공 교육이 늦게 되는 거죠.

사 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써왔을 뿐 아니라 대학 입시제도 또한 제자리를 잡고 있지 못합니다. 학생들은 학원 등지에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정작 깊이 공부하지 않은 교육으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까지 기대할 수 있는 학업 성취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개인적인 인정하지 않는 평준화 교육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는 '대학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며 대학 전공의 세분화를 하기 힘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高萬善: 우리 나라 대학 선발방식이나 기준을 놓고 '오류를 만드는 교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류는 남기, 헤메이기, 잡수도 조금씩 다하는 불모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도 모든것을 조금씩 하는 전문성이 부족한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영어테스트를 치러도 잠자는 사람의 위주가 아니라 살수하지 않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아니라 같은 경우 수학 시험을 봐도 상당히 수준 높고 어렵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높은 시험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문성과 실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러시아의 명문대 학생들은 외국어 수업을 받았던 그 언어를 불편한 없이 구사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 회: 우리는 교육을 너무 다양하게 시

키다보니 능력이 낮아지지 않았으나 연려스리 운데요. 러시아의 경우 한 학기에 40주, 일주일에 57시간으로 일련의 고등학교와도 비슷하게 많은 학습량과 집중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李志樹: 러시아 대학 교육이 전문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 철학, 문학 등 기초학문에 대한 교육도 간과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러시아의 학생들은 모두가 대학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고학력으로 갈수록 경쟁에 의해 어느 정도 진학률이 감소되기 때문에 평준화를 통해 진학한 우리 나라 학생들처럼 모두가 대학에 가야 한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라고 개개인의 재능이 다르다는 점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확립화가 사회주의 국가보다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高萬善: 사실 러시아 교육에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제난이 가중되다 보니 공립학교의 질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를 보면 신인 교사도 모집이 힘들며 교령의 여교사만 학교에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난 등의

을 갖추었던 생각하기 쉬운데 이와는 달리 상당부분 엘리트 교육에 힘썼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이는 국가의 목표가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려는 체제 경쟁의 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결과로 엘리트 육성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또한 변화에 적응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환경임을 감안했을 때 국가가 주도하여 엘리트를 육성하고 그 엘리트가 이끌어갈 수 있는 토대를 건설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사 회: 좋은 말씀입니다. 기획·경제제도와 개방 경제제 사이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대학이라고 하면 절대 양분될 수 없는 것은 학문적 수월성 추구와 최고 정예의 양성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나라는 대학이라는 이름이 너무 남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학은 진정한 엘리트 양성기관이어야 합니다.

서울에 또한 종합대에 걸맞은 위상과 업적을 이뤄 엘리트 양성기관으로 인정받을 때만이 국립대 평준화라는 발언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흔히

이에서 최고의 수월성을 가지고 있어 분야별 엘리트를 양성하고 있으며 엘리트 개념이 상당히 다분화 돼 있습니다.

李志樹: 저는 러시아의 교육기관이 전문성을 강조한 엘리트 교육이지만 전공 분야를 불문하고 문학, 역사, 철학 등에 관한 커리큘럼을 강화해 인성과 교양을 갖춘 엘리트를 양성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교 또한 인문학 소양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교가 엘리트 교육을 지향한다면 이는 꼭 필요합니다.

사 회: 동의합니다. 철저한 전공교육을 받은 높은 수준의 교양인으로서 러시아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면 무엇인가 다르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우리 나라와 비교했을 때 대학에 대한 인식이 달라 훨씬 더 엘리트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교육의 문제점을 없애는 또 있다면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李敏植: 교수님이 무너져서 시작하·민주화를 통해 많은 사립대학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사립대로 부실화돼 인해 러시아 문고부에서 지역별로 대학을 5년간 평가해

서 순위를 매겨 소수의 대학을 집중 지원, 이들 대학을 살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시사하는 점은 우리 나라 정부가 많은 대학들을 허용해 대학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왔기에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下茲台: 교수님이 자본주의화되면서 우리와도 비슷한 현상

을 일으키고 있는데, 남자들은 안문제열보다는 열거대를 지나치게 선호하는 경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에요. 다만, 우리가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원들의 자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난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대학의 학자들은 교육자로서의 자부심, 긍지 등을 잃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헌신성은 정말 놀라워합니다.

사 회: 시장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교육자나 학자들에게 많은 타격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학자, 교육자의 길을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부패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이 결코 교육을 팔아먹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李敏植: 말값하진 바와 같이 교육자의 질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르모 국제관계대학의 경우 어려운 입시 과정을 거쳐 들어갔더라도 본인이나 수준을 못 따라가면 거처있어 학교를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육의 질과 수준이 유지되고 있고 교수들은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하며 점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바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관리하는 것처럼 교수들의 자기 반성을 통해 교육의 질이 유지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나라 대학에서도 요청되는 것 같습니다.

사 회: 말씀을 들어보니 서울대에 대한 민중에서 엘리트 양성기관으로서 남다른 학문의 수월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때문에 '서둘러줄 없애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갑니다. (정리=朴善李기자)



“엘리트 개념 다분화·전문화돼야” 개인 특성 살린 차별화 교육 필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기초영어회화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명문초·중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나라 외국어학교와 같은 곳이 명문 중학교에도 설치돼 있는데, 경제난으로 인해 외국어인 교사는 없지만 일반 교사의 수준이 어떤데가 같습니다. 보통 공립학교들은 수준이 낮고 질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러시아는 국민의 10%가 이슬하고 있고 그 10%는 세계에 내보내 뭉치지 않는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 회: 교수님 시대에는 계급별로 균등한 진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교육의 기회가 적은 층을 위해 특별 입학으로 틀어갈 수 있는 여러 특수학교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수월성 추구는 단리 노동자, 농민, 인텔리 등 계급별로 다르게 진학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세 학교였으나 인텔리 층이 주로 진학했고 시장 경제체제로 오면서 특수학교의 부패가 발생되고 심화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는 수월성을 추구하는 고등교육기관이 살아 남아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인재들을 길러내는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수월성 추구하고 평등체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듯합니다.

李敏植: 교수님 시대의 교육이 사회주의에서 생각하기 쉬운 평판적인 사회 시스템

우리 나라 같은 경우 한 대학만이 수월성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러시아의 경우는 어떤가요?

李志樹: 지금은 사립대로 상당히 많이 양성됐으나 교수님 체제의 대학들은 1백% 공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립임으로서의 통일화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대학별로 특성을 살려 레닌그라드대, 모스크바대 등 각 대학들이 자기 다른 분야에서 수월성을 유지해왔습니다.

下茲台: 서울대도 이렇게 분야에서 완전히 수월성을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포항공대, 카이스트 등 몇몇 특화된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나 러시아 대학들은 자기 세분화된 전문성을 살려 레닌그라드대, 모스크바대 등 각 대학들이 자기 다른 분야에서 수월성을 유지해왔습니다. 서울대도 다양한 상충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들도 이런 흐름과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李敏植: 우리 나라와 러시아간에 엘리트 인식이 다르고 양성 방법 또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엘리트 양성의 필요성을 우리 나라도 인정하지만 대학 교육 자체는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에는 각 지방별로 대학들이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자기 분

자연과학대학

특별을 찾아서

자연과학대학 동창회

우수한 연구시설 등 첨단 과학분야 선도

10여개 학과 졸업생의 구심점 역할 '특특'

자연과학은 우주의 물질의 기원으로부터 생명현상까지 다양한 물질세계의 원리를 과학적 방법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며, 자연과학대학은 이러한 자연과학을 교육 연구하는 대학으로, 서울대학교 단과대학 중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자연과학대학은 학문적 수월성 이외에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를 선도하며 인력을 양성해왔다.

현재 2백여 명의 교수와 1천5백여 명의 대학원생이 우수한 연구시설을 활용해 국제 경쟁력을 가진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교수들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 설립 이후, 문리

으로 통합했다.

자연과학대학 졸업생은 대학교, 국·공·사립 연구소에서 기초과학을 계속 연구하거나 산업계에 진출하여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술자, 경영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는 공무원, 언론인,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다.

우수한 교수진과 학생, 연구시설이 아우러져 세계적인 첨단 과학분야 일선에서 모은 역량과 정열을 마음껏 쏟아내며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자연과학대학이라 하겠다.

글: 金夏英(67년 文理大卒)모교 자연과학대학 학장



모교 관악캠퍼스 자연과학대학 25-1동 건물 전경

과대학 이학부(수학과·물리학과·화학·생물학과·지질학과)에서 1975년 서울대학교 종합학계제에 따라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자연과학대학으로 분리됐다.

1999년 기초과학계와 지구환경과학계로 나눠졌던 자연과학부는 2000년 전산과학전공이 폐지되면서 전산학과전공과 공대 컴퓨터공학부가 공대 전기·컴퓨터공학부로 개편됐으며, 대학원의 수학과는 수리과학부, 물리학과는 물리학과, 화학과는 화학부, 생물학과·분자생물학과·미생물학과는 생명과학부, 천문학과·대기과학·지질학과·해양학과는 지구환경과학부로 통합 및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 현재 자연과학대학의 학사과정은 수리과학부·물리학과·화학부·생명과학부·지구환경과학부의 5개 학부와 통계학과·의예과 및 수의학예과로 구성돼 있다.

자연과학대학은 소속 학부생의 교육 이외에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 약학대학 등의 기초과학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대학원과정은 2000년부터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의 대폭적인 지원결과 대학원생의 학비지원과 함께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부설기관으로는 1979년에 설립된 자연과학종합연구소가 1997년 기초과학연구원으로 변경됐으며, 같은 해에 통계연구소·물성과학연구소·분자과학연구소·지질환경연구소·대기환경연구소가 기초과학연구원

■ 연혁

- 1946년 8월 국립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경성대학 법문학부와 이공학부가 문리대학으로 개편되면서 문리대학 이학부 5개 학과로 출발
- 1958년 1월~1974년 1월 천문·기상·식물·동물·해양·미생물·계산통계학과, 수의예과 신설
- 1975년 2월 문리대학 이학부가 자연과학대학으로 개편
- 1975년 3월 관악캠퍼스로 이전. 문리대학 이학부를 모체로 하여 자연과학대학으로 발족
- 1979년 1월 자연과학종합연구소 부설
- 1995년 2월 5개 학부영역과 2개 학과로 산업계 모집
- 1997년 자연과학종합연구소가 기초과학연구원으로 변경. 통계연구소, 불산과학연구소, 분자과학연구소, 지질환경연구소, 대기환경연구소가 기초과학연구원으로 통합
- 1999년 3월 자연과학부 신입생을 기초과학계와 지구환경과학계로 분리 모집
- 2000년 2월 자연과학부 전산과학전공 폐지. 전산과학전공과 공대 컴퓨터공학부가 공대 전기·컴퓨터공학부로 통합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은 1946년 서울대학교에서 시작된 문리대학의 이학부 5개 학과(수학과·물리학과·화학·생물학과 및 지질학과)에서 출발했다.

이후 1975년 서울대학교의 관악캠퍼스 이전에 즈음해 문리대학 이학부를 모체로 공과대학 응용 3과,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교양과정 이학부 일부 교수가 참여해 새로운 이름의 자연과학대학으로 개편됐다.

이에 발맞추어 서울대학교 분리대학 이학부와 자연과학대학의 졸업생들을 포함해 1994년 서울대 문리대 이학부·자연과학대학 동창회가 출범하게 됐다.

1994년 10월 자연과학대학 총동창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새로 문리대 이학부·자연과학대학 동창회 회칙을 제정해 초대 회장에 李龍兒(57년 물리학과)를 선출했다.

이후 1958년~1969년 사이에 신설된 천문·기상학과, 식물학과, 동물학과, 해양학

과, 미생물학과를 포함해 1975년 자연과학대학 내에 신설된 계산통계학과, 다시 전문기상학과에서 분리된 천문학과와 기상학과 등 10여 개 학과의 동창회를 망라하는 자연과학대학 동창회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그간 자연과학대학은 대부분 각 학과별 동창회가 문리대 이학부 시절부터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동문들 친목과 모교 지원 등 매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에 발맞추어 자연과학대학 동창회도 비록 자연대로서의 역사는 짧으나 부단한 노력과 발전을 거듭해 1만명이 넘는 회원들을 확보하며 동문들 상호간의 긴밀한 연락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995년 '자연대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 자연과학대학 동창회는 각 학과의 발전뿐 아니라 자연대인으로서의 일체감을 간직하지는 결의를 다졌었다. 이어 1996년 정기총회에서 초대 李龍兒회장이 제2대 회장에

연임했으며, 1997년 제3대 尹沃榮(61년 수

학과)회장, 1999년

제4대 陸寶根(61년

화학)회장을 거쳐

2002년 제5대 회장에

朴鍾世(66년 화학과

수)동문을 선출해 현

재에 이르고 있다.

동창회의 주요 업무

를 담당하는 회장단

구성엔 수석부회장과

다수의 부회장, 사업·

재무 및 총무 등의 이

사가 있으며 임기는 2



2002년 총회에서 朴鍾世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혁

- 1994년 10월 18일 창립총회 및 동창회 회칙제정, 초대 회장에 李龍兒동문 선출
- 1995년 6월 22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동창회 주최 제1회 '자연대인의 밤' 행사 개최
- 1996년 10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제2대 회장에 李龍兒동문 연임
- 1997년 2월 21일 이사회 개회
- 1997년 10월 26일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尹沃榮동문 선출
- 1998년 6월 30일 이사회 개회
- 1998년 10월 18일 이사회 개회
- 1999년 10월 9일 정기총회에서 동창회 회칙개정, 제5대 회장에 陸寶根동문 선임
- 2001년 5월 31일 이사회 개회
- 2002년 1월 9일 임시총회 및 산내교례회 개최, 제5대 회장에 朴鍾世동문 선출
- 2002년 3월 陸寶根동문을 비롯한 동창회의 전폭적 지원으로 모교 '과학 및 정책최고과정' 개설
- 2002년 5월 동창회 명부발간

년으로 정하고 있다.

자연과학대학 동창회에서는 많은 동문들의 정열과 헌신적 파악이 급선무라고 판단, 2002년 총회원수 1만명 이상을 수록한 동창회 명부를 발간해 동창회원간의 긴밀한 네트워킹에 촉매역할을 제공하고자 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지도층을 위한 자연과학의 첨단연구 소개 및 과학정책에 대한 고급교육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2002년 자연과학대학에서는 '과학 및 정책최고과정(SPARC)'을 태동시켰는데, 당시 회장이었던 陸寶根동문의 재정지원을 비롯한 동창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정착하며 현재 제6기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자연과학대학이 출범한지도 이미 27년이 지난 지금, 그간 1만명이 넘는 졸업생들은 우리 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곳곳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

자연과학대학 동창회에서는 모교 재학생들이 졸업 후 각 분야에서 핵심직 리더로서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학생, 교수진, 졸업생들이 서로 아낌없는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앞날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글: 金夏英(80년 自然大卒·모교 화학부 교수)동창회 전임 총무

동문기자 취재주점

개처럼 취재해 정승처럼 쓴다

“아들아, 기자 그만 두면 안 되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1996년 초 수습기자 시절 새벽 4시에 출근하는 필자의 동을 향해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일주일 내내 경찰서에서 먹고 자다가 옷가지를 챙기러 집에 갈 수 있는 날은 토요일 저녁. 그렇게 집으로 도착한 아들이 잠시 거실에 놓여 그 대로 깊은 잠에 빠졌고, 새벽 4시가 되자 혼란스런 행적처럼 발걸음 일어나 다시 경찰서로 향하자 어머니는 어지간히 마음이 아프셨던 모양이다.

어머니는 그 때를 ‘주5일 근무를 하고 주말이면 가족과 여가를 보내는 한의사 큰 아들의 녀석한 삶과 똑같은 아들(필자) 앞에 펼쳐진 고달픈 삶이 너무 대비되더라’고 회고했다. ‘왜 술은 예감은 물론 적이지 않나’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기자의 삶은 실제로 고달팠다. 특히 젊은 기자들 사이에서 ‘3D 부서’로 불리는 사회부, 정치부만 전전했던 필자에게 그 고달픔은 가족에게 그대로 전가됐다.

신문 최종마감 시간인 자정 이전에 귀가하려면 지푸 뒤편에 달기는 ‘요한 밤’이 생겼다. 가뜰서 푹 나뉜 오후 10시경 막대한 필자에게 “아빠,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라며 의아해하는 아들 살 만발의 반응이 더 이상 낯선거나 서늘하지 않다.

기자 사회의 경구는 대부분 바쁘고 고달픈 생활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감 시간에 소변 보고 뭘 시간도 없다’가 대표적.

‘마감 시간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눈물 흐를 겨를이 없다’는 반응특성 표현도 있다.

기자생활의 경구(警句)들

‘기치만 안 쓰면 기자가 최고 직업’이란 말은 기사 쓰고 마감시간을 지키는 스트레스와 막대한 책임을 다르게 묘사한 것이다. ‘선 거만 없으면 국회의원’이 최고 직업’이라는 경구와 비슷하다. 물론 총선은 4년에 한번이고, 기자들은 매일 기사를 쓴다는 것이 엄청난 차이이지만...

필자가 2001년 10월부터 2004년 4월까지 편집국 내에서 시간의 수량을 가장 많이 주는 출입처 중 하나인 정당을 담당하면서 채득한 경구가 하나 있다. ‘개처럼 취재해 정승처럼 쓰라’

나이 40이 넘는 고참 선배 기자들이 단 말 몇 마디를 듣기 위해 남(의위를) 밥 다 먹을 때까지 상당 한 귀찮음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땐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뭐하는 자야나, 아이들은 아빠가 이러는 것 알까?”라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곤 한다. 그러나 그렇게 주워들은 한 마디가 신문 1면 톱기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비참한’ 취재 과정을 참아내는 것이다. 취재가 힘들수록 기사는 읽히는 법이니까.

동아일보 7월 9일자 A2면에 보도된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고구려 사제 파문’ 기사는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이 주



夫 亨 權
(93년 社會大學)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관하는 ‘이 단의 기자상(제167회 취재보도 부문)’을 받았다. 중국 외교부가 자신과 홈페이지에서 한국의 3국(고구려·백제·신라) 시대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갑자기 ‘고구려’란 생 글자를 지워버렸다는 내용이었다.

한반도의 ‘고구려’ 찾기 대작전

필자는 올 4·15 총선이 끝난 뒤 정당팀에서 외교통상부로 출입처를 옮겼다. 당시 중국의 고구려사 외교 문제는 이미 한-중간 중요한 외교현안이었다. 그 맥락은 중국 정부가 직접 예전에 거둬두고 있느냐는 것이다. 심층은 충분하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였다.

밤마다 외교부 기자실에 남아 서둘러 배

이전의 외교소식봉에 전화해 걸어 상항을 체크하는 ‘전화 미와리’(경찰서를 돌아다니는 사안기사를 지칭하는 ‘사조미와리 察問’)에서 파생된 기자사회(의 언어)를 돌기 시작했다.

7월 8일 오후 11시경 한 외교소식봉으로부터 귀가 반쯤 뜯어는 말을 들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최근 고구려가 삭제됐다”는 말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면 중국 정부 차원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첫 증거가 되는 셈이다.

통일부를 출입하는 金辨鍊(92년 社會大學)기자, 국방부를 출입하는 崔虎元(91년 社會大學)기자, 黃有政(베이징대학에 재학 중)이 사임을 알리고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기점으로 뒤지는 대작전을 폈다. 11시45분경 홈페이지의 한국 개황 부분에서 삼국시대 관련 기술 부분에 ‘신라’와 ‘백제’만 남아 있는 것이 간신히 확인됐고, 신문의 주요도시 시내 내마 마감 시간인 자정 전에 서둘러 기사를 출고했다. 그야말로 ‘개처럼’ 굴러가던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그 기사는 ‘정승’ 이상의 위력을 발휘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정식으로 합의하면서 고구려사 왜곡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필자가 기자생활을 하는 한 ‘개처럼 취재해 정승처럼 쓰라’는 경구는 좌우명처럼 지킬 생각이다. 취재 과정의 실제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달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아들을 향해 ‘사람 같지 않은 기자 생활 그만 두면 안 되냐’고 하시던 어머니는 요즘 이렇게 말씀하신다.

“개처럼 필력기려며 열심히 사는 것이 네 팔자라니 생각해라.”

필자가 1970년생 개띠고 삼복대위가 한

월간 8월 초(양력) 대낮에 대아까지 때문

이라는 것이 어머니식 사주풀이다.

‘우리’의 장애인 올림픽이 되길...

장애인 사적 여자 공구소총의 세계최강 김민연 선수. 올림픽 4연패에 도전했지만, 이번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부당감이었다. 아쉽게 은메달에 그치고서는 이렇게 말한다.

“금메달을 따지 못해 죄송합니다.”
꼭꼭한 해빙이었던 스물 한 살 때 훈련 도중 병원에서 추락해 사지가 마비된 이 해군 씨. 불굴의 의지로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에 라켓을 끼운 뒤 봉대로 잡아 때

고 탁구를 시작했다고 한다.

민저지지 않는 투혼으로 88년 서울 올림픽 때 첫 금메달. 이후 장애인 올림픽에서 이해군 씨의 적수는 없었다. 내리 올림픽 4연패. 하지만 역시나 갑자기 몰려든 취재진에 부담을 느껴서일까. 이번 대회엔 의외로 은메달에 그치고서는 이렇게 말한다.

“국민 여러분께 금메달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허려 우리가 죄송합니다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당신들이 왜 죄송하냐고, 죄송해야 하는 건 우리라고. 당신들이 세계 정상을 달리고 있을 때, 미올보다 더 고통스러운 무관심을 보낸 건 우리라고. 당신들이 금메달을 따고도 훈련할 수 있는 여건도, 여전한 직업도 구하지 못해 생의 벼랑으로 몰려난 것도 우리라고.

추천국이었던 1988년에 버려지기로 장애인 선수들을 급조해낸 뒤 손을 놓아버린, 그래서 선수단의 대다수가 30~40대



李 星 勳
(01년 人文大學)
SBS 스포츠본부 기자

선수들로만 구성된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 48세 아줌마 사수 허범숙 씨가 금메달을 따고도 한 달 60만원씩 지원받는 생계보조금이 삭감될 것을 경계해야 하는, 빈약하기 짝이 없는 사회보장체계를 만들고, 정확히는 있는지 없는지 신성도 안 쓴 것도 우리라고. 88년 장애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가운데 여러 명이 구권로

성을 인형처럼 만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고.

무엇보다 ‘우리’와 ‘당신들’의 경계선을 그은 것도 ‘우리’라고.

대회 개막식 선수입장 때, 그리스 선수단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밖에서 자신들의 차례가 오길 기다리며 너무나 신나게 노래 부르고 춤추며, 마치 MTV라도 온 잔치를 벌이던 모습을. 그리스의 선수단이 입장하는 순간, 지난 하계 올림픽 때와 똑같이 주경가장을 때 때면 7만5천 그리스 관중들은 소리 높여 ‘올림픽!’(그리스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부르는 이름)을 외치며 영웅들을 환영했다.

그들은 모두 축제의 주인공이었다. 그들 사이에, ‘우리’와 ‘당신들’의 경계는 없었다.

그들은 모두 축제의 주인공

여느 때보다 많은 관심 속에 치러진 장애인 올림픽. 이제는 한국 사회에도 ‘우리’와 ‘당신들’의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을까? 이제부터는 ‘우리 다 함께’ ‘우리의 금메달’ 아니 ‘우리의 올림픽’에 기여할 수 있을까? 장애인 올림픽이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닌, 승부의 박진감을 함께 나누는 스포츠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제12회 아테네 장애인 올림픽대회 로고

에너지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절약운동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해야

許殿宰 :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해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유류(WTI) 기준으로 배럴당 50달러 선을 넘었고 있습니다. 7월 중순 WTI 현물시장가격이 배럴당 40달러를 넘어선 이후 두 달 이상 계속해서 40달러를 상회하고 있어서 우리 나라처럼 에너지를 97%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경제에 크게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돼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카타르 등 5개국이 앞으로 천연가스분야에서도 석유수출기구(OPEC) 같은 조직을 결성한 움직임을 보이게 하는 등 국제시장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우리 나라는 석유 수입으로 따지면 세계 3위 수준이고, 2003년 한해의 에너지 수입으로 3백여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수출로 벌어들이는 1천66억 달러와 자동차 수출로 벌어들이는 1백48억 달러를 합친 정도의 큰 금액이기에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인 동시에 특별한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 나라의 여건을 감안하면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2004년에는 고유가로 인하여 에너지 수입액이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유의 경우 실제 물량적으로는 충분하게 있습니다만 화석연료가 한층더는 전반적인 환경문제, 이변의 경우처럼 불안정한 국제시장, 국제관계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서 석유 사용을 가늠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李長茂 :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계 화석연료의 경제적 채굴 가능성이 석유의 경우 40년, 천연가스의 경우 65년, 석탄의 경우 2백년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획기적인 대안이 없으면 에너지 자원은 빠르게 고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이 에너지 문제를 정치·무역·외교를 포함한 모든 국가 차원에서 있어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이 문명의 총물에서 일어났다고 하지만 에너지 문제로 보는 견해도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나라의 경우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또 그 대부분이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서 지구온난화, 오존층 감소, 환경오염, 유출사고와 미세먼지 등의 환경 문제까지 유발시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許殿宰 : 에너지 문제는 단순히 경제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국제정치, 안보 등 여러 차원의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국제 유가의 상승은 사실 중국의 급속한 소비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게다가 국제시장에 부가가치가 급격하게 몰려들면서 예전의 1, 2차 석유위기는 전혀 다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투기자금이 2~3% 수준밖에 안됐으나 2004년 초에는 거의 25%에 육박한 만큼 투기자금이 몰려든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천연가스뿐 아니라 원자력발

척은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3차 오일쇼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 나라 전력 에너지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도 현재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가 한계에 부딪혔다. 세계 3위의 석유 수입국인 우리 나라가 에너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9월 6일 국가 에너지 정책의 심의·조정하는 '에너지기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산업계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나, 본격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본보는 에너지의 국내외 상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알아보고자 지난 9월 20일 산업기술평가원 이사장과 신재생에너지화합장을 맡고 있는 모교 공대 후배 李長茂교수와 에너지정책 전문가인 許殿宰교수의 대담을 마련했다.

시사 대담

- **李長茂** (67년工大卒) 모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산업기술평가원 이사장,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 **許殿宰** (67년工大卒) 모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조교수, 한국자연경제학회 총무이사,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에너지·산업분과위원



외국은 최우선 정책과제로 다루어 석유·천연가스·석탄 등 빠르게 고갈

전소 전설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최근 많은 문제점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화석연료 대안의 하나로서 70~80년대 최고의 광물을 받았던 원자력 에너지만 하더라도 현재 우리 나라 전력의 40% 이상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이질적 핵 폐기물의 부지 선정을 못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 건설도 지연되는 등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외국의 경우에도 1986년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원자력발전소를 아예 중단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李長茂 : 국가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첨단 과학기술이 미래 사회의 산업, 경제는 물론 환경, 교육, 의료, 문화, 법률, 국

방, 안전 등 광범위한 영역에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연구하고 토론과 공청회 등을 통해 잘 예측해서 미래를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결성됐습니다.

첫 해에는 NBIT(나노·바이오·정보 테크놀로지) 융합기술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 과학기술자뿐만 아니라 인사사회까지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 임원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훌륭한 대안이 많이 나와서 이미 정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MIT의 세계적인 세계적 공학자인 서남표 교수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초대를 받으며 강연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 분이 첨단 기술 중 에너지 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가장 전략적인 미래 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40~50년 후에는 태양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풍력 등의 친환경 에너지의 연료전지, 해양 에너지, 지열 등의 신기술이 활용돼 산업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 기술은 우리의 환경과 생존, 지속적으

로 발전 가능한 미래 사회 구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기 기술영향평가위원회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許殿宰 : 정말 에너지 기술은 20세기 석유의 반격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꾸 대표적·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 말에 환경보존이 부각되면서 국제적으로는 이산화탄소의 저감과 온실효과 등의 대책을 위한 기후변화협약과 지구온난화 대책들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가 중심이 되어 1997년 교토의정서를 거쳐면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에 대해서 각국이 나름대로 배출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의무를 지고 있지 않으나 실제로는 지구 온난화와 가스를 줄여야 하는 압력을 크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에너지원 발굴과 환경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아내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李長茂 : 부족한 에너지원 확보와 해외의 석유자원, 개발, 투자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절약 정책,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 등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접하는 수돗물 비용의 많은 부분이 물을 공급하는 동력의 전기요금에 해당, 플라스틱, 시멘트 등 거의 모든 재료가 고에너지 소모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곳곳에서의 절약운동이 정말로 가장 큰 에너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조선 등의 중화학 산업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차량의 소비량이 1톤 정도인데 이것은 일본의 두 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국가가 중심이 되고 기업과 대학이 참여해서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에너지 절약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연료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배기가스 공해를 크게 줄이는 소위 하이브리드(Hybrid) 자동차는 전기와 휘발유 등 두 가지 이상의 동력원을 혼합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인데, 이 차량의 개발 경쟁은 각국의 미래 자동차산업의 생사를 결정짓는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제 에너지 절약 기술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許殿宰 : 지도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스위스연방공과대학(ETH)을 중심으로 국가와 학교, 연구소가 힘을 합쳐 소위 '2000 Watt Society' 운동을 펼쳐 1인당 에너지 소비를 현재 6천watt에서 2050년까지 3분의 1로 줄이자는 절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열제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형 주거환경의 개발 등 중·중대 기술이 필요, 절감 정책과 기술도 개발되어야 하지만 대안이 되는 새로운 에너지, 친환경에너지의 발굴도 중요하겠지요.

석유 소비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원자력 에너지도 많이 활용하는 프랑스는 7%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7%

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3.1%이지만 2050년까지 태양 에너지 40%, 풍식물 유기물에서 배출 생성되는 바이오매스 30%, 풍력 15%, 수력 10% 등 상당히 많은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친환경 에너지 비율을 매년 크게 높혀 나가고 있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李長茂 : 그렇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5%, 3%에 달합니다. 우리 나라의 두 세 배에 해당되는거죠. 최근 미국은 특별 예산을 편성해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와 관련된 2001년의 미국 에너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30년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전체의 55%, 수소와 산소의 화합반응을 이용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무공해 동력을 실현한 연료전지 자동차가 35%, 전기자동차 10% 현재의 내연기관 차량은 1%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이미 일본전국 각역수준인 2만여 달리에 달하는 하이브리드 차량 '프라이우스(Prius)'를 시판 중에 있고, 혼다자동차도 '인사이트(Insight)'를 개발했습니다. 일본은 2010년까지 연료전지 자동차 5만대와 40만 가구의 가정용 연료전지도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 현대자동차도 급전 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백20억원을 출연해 올해 모교 관아캠퍼스에 '차세대 자동차 신기술 연구센터'를 건립해 주었는데, 이곳에서는 주로 하이브리드 차량과 연료전지 등의 차세대 자동차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연료비가 크게 절감되고 공해가 적은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우리 나라에서도 많이 타게 될 것입니다.

許殷孝 : 얼마 전에 학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직접 제작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길거리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구를 위해 많은 연구비를 지원했고 유럽에서도 큰 예산을 지원해서 저공해, 저연비

의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연료전지 차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국내 기술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연진 기술은 80% 수준이라고 합니다. 축전 기술 등은 60%로 매우 낮게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 일환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시작됐지만 연구비 규모 등이 매우 적어서 연구성과가 걱정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다양한 수송기관의 동력원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기업, 생산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용화되면 공해 및 에너지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생활환경도 쾌적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더불어 풍력,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최근의 고유가에 영향을 받아서



李長茂 교수

가 높고 가격이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비해 상당히 높아져 정부의 특별지원이 없으면 확대 사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유가 상승, 태양전지 기술 및 풍력발전 기술의 향상으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서는 풍력발전이 크게 활용되고 있고, 독일과 일본에서는 뛰어난 태양전지 소자들이 개발돼 발전 단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0년까지 12%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미국은 2010년까지 1백만호의 solar roof를 확보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경제성이 급속히 개선되는 등 신재생에너지가 석유를 대체할 확실한 대체에너지원으로 자리



許殷孝 助교수

한국형 풍력·태양광 발전도 연구해야 바이오매스 등 미래기술에 지원 절실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요.

李長茂 :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 에너지 소비 비중은 대략 석유 38%, 석탄 30%, 천연가스 20%, 수력 7%, 원자력 5% 그리고 태양 에너지,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조력을 합쳐 1%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와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는 아직도 초기 투자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국회 신재생에너지 정책 연구모임이 활동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여건에 대한과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돼 내년 초부터는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강원도 풍력발전, 제주도 풍력발전이 계획돼

있어서 다양한 친환경에너지 개발에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許殷孝 : 우리 나라의 에너지 소비 중 대수력(대형댐)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1.3%에 불과합니다. 이중에서 폐기물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태양열과 태양광이 1.1%, 풍력이 0.2%로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향후 9조여 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1년까지 5%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산업자원부 산하에 신재생에너지의 3대 연구개발사업단으로 태양광사업단, 풍력사업단, 수소연료전지사업단이 큰 예산을 지원받아 활동을 시작했고, 이중 풍력사업단은 모교에 설치돼 공대 기계항공공학부 **李堉田** 교수가 단장을 맡고 있어 모교도 친환경에너지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기계화회장을 역임한 **李堉田** 교수님께서 풍력,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을 망라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병학문적 학회인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초대 회장에 취임하셔서 학회가 기대됩니다.

李長茂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는 앞서 이야기하신 풍력, 태양 에너지 등 여러 에너지 분야에 전기, 기계, 재료,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의 과학자와 자원경제, 환경 등의 인문사회학자, 기업인과 특히 환경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교의 교수님들과 동문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남출하진 비와 같이 우리 나라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의 소각에 의한 것을 제외하면 비중이 0.1%로 덴마크의 1백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서 태양광이 75%, 풍력과 연료전지가 50% 수준으로 낮은 편입니다. 지속 공속에 적합한 한국형 풍력발전기 개발도 해야 하고 외국보다 우수한 고출력 태양광 발전 소자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학회를 통해서 상호신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또한 첨단 기술들도 많이 개발해서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정리=安興奎기자)

Noblesse Oblige

한국경제전략연구원 權昇異이사장

강릉시립도서관에 도서 4천여 권 기증

“후배들과 기증할 책을 정리하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고 못더군요. 제 삶의 한 부분이었는데 ‘헌으로 값을 매길 수 있겠소’ 그랬죠.”

45년 동안 외길을 걷어온 원로 언론인 權昇異(57년 亥大卒) 이사장이 지난 9월 8일 평생 동안 소장해온 장서 4천4백권과 서화 60점, 도자기 20점을 고향인 강릉의 시립도서관에 기증에 충혼한 화제가 되고 있다.

權昇異는 “오랫동안 기자로 활동하면서 꾸준히 도서와 자료 등을 수집해 왔다”며 “강릉 시민의 문화 창달과 후학들의 공부에 대신하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애환의 뜻을 담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기증한 도서 가운데는 지금도 구하

기 힘든 다수의 언론분야 책과 權昇異 자신이 청년시절에 읽었던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펄서스의 ‘인구론’ 등의 원서도 포함되어 있다. 강릉시립도서관 최순각 관장은 “權昇異의 기증 도서들은 상당수 전문서적으로 자료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權昇異는 책을 기증할 때도 ‘외서 가져 가라’는 식으로 하지 않았다. 4천4백권을 일일이 확인하며 꼼꼼하게 도서 목록표를 작성, 깨끗하게 막스에 담아 보내왔다. 도서관이 해야 할 작업을 덜어준 것이다.

權昇異의 강릉사랑은 각별하다. 이변의 도사기증도 애환만 고향사람에서 비롯된 것이다. “강릉을 보름 文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가보면 규모도 작지



만 책들도 그리 많지 않아요.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예산이 부족해 다양한 책을 구비해 놓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아직 정리하지 않은 책 1천여 권이 남아 있는데 기회가 되는 대로 그것까지 기증할 생각입니다.”

그는 강릉상고 총동창회장을 7년간 역임하며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대관령에 사

단당 시비를 건립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제정 강릉시민회장을 맡으면서 ‘강릉 사람들’, ‘어머니 아 그리운 어머니’, ‘대관령 옛 고갯길들 걸으며’ 등 3권의 고함수상품을 발간해 난다른 고향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수필가이자 知人인 최복규 씨는 “강릉 출신으로 외지에 나가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은 수없이 끊어진 사재를 털어 고향의 위상을 높이고 강릉인의 긍지를 고양하는데 權昇異처럼 헌신한 사람은 별로 없다”고 그의 수필 ‘좋은 친구를 가진 행복’에서 밝히고 있다.

權昇異는 요즘 틈틈이 지나는 삶을 글로 써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어느 정도 양이 모아지면 책으로 출간할 계획이라고도

“한국의 전통기를 언론인으로 살아오면서 ‘역사란 무엇이고 그 안의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언론계를 떠난 지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서전을 통해 이런 고민의 흔적들을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南)

화제의 동인

이영미미술관 金利煥관장

朴生光 탄생 1백주년 특별전 개최

“살바도르 달리의 탄생 1백주년을 맞아 스페인인 율해를 ‘달리의 해’로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朴生光 같은 거장의 탄생 1백주년을 제대로 기념해야 진정한 문화국가라고 할 수 있죠”

지난 9월 17일부터 이 달 말까지 ‘朴生光 탄생 1백주년 기념 특별전’을 열고 있는 이영미미술관 金利煥(70년 行大院卒) 관장의 일성이다.

전작적인 화가와 그를 발견한 사람의 인간관계는 미술의 역사 속에서 많이 찾아 볼

그렇게 돌아갈 때까지 지냈습니다”

古龍가 남도목 화사에서 주묵받지 못했던 乃古는 金동문의 도움으로 78세에 대상가림관에서, 81세에 문예진흥원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그의 대표작 ‘명상환후’, ‘전통전’ 등이 이때 나왔다. 기존 한국화에서는 볼 수 없던 ‘진짜 한국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왜색이라고 매체했지만 乃古는 전통이라는 화두를 채색했던 인물입니다. 주조제도 무당, 불화, 역사적 사건 같은

은 우리 것들이고 그가 사용했던 오방색은 우리 오방에 부합하는 색채이지요.”

권으로 시작된 乃古와의 인연 덕분에 金동문은 사업에서 양두족사를 개조한 대규모 서예미술관 관장으로 변신하기에 이른다. 이를 위해 화단의 나이

에 일본 외제에 대학원에서 수학하며 미술관 경영과 乃古의 일본 시절을 연구하기도 했다.

金동문의 乃古 사랑에 감동받아 자신의 작품을 기증한 작가들이 많다. 조각가 韓道真(60년 美大卒)·金孝榮(62년 美大卒)·조문, 추상화가 鄭相凡(57년 美大卒)·동문, 서예화가 金 仁(74년 美大卒) 동문의 작품이 이영미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다.

그가 최근 발간한 회고록 ‘수유리 가는 길’을 통해 乃古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착고한 때까지의 인연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南)

(이영미미술관 : 031-213-8223)



수 있다. 安大君의 후원 없이도 安 聖의 ‘동문도원도’가 존재할 수 있었고, 孝憲 姜世평의 사랑 없이는 權道 金道源가 탄생할 수 없었다. 乃古 朴生光과 金동문은 이에 못지 않은 깊은 애정과 존경으로 애원 쌓인 끈끈한 관계다.

“77년 국무총리실 조정관으로 있을 때였어요. 이진복씨 한 점, 두 점 그림을 모아 왔는데 乃古의 ‘홍모란’이 좋다는 얘기와 그분이 진주봉고 선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

동문을 찾아서

한국소비자보호원 李承信원장

“내부 업무 재평가…위상 강화하겠다”

지난 9월 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비원) 제10대 원장에 李承信(77년 家政大卒·건국대 교수) 동문이 취임했다. 이에 지난 9월 19일 李동문을 만나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 첫 공무제로 원장에 선임되셨는데,

“이제까지 소비원 원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제도화돼 있었죠. 그러나 소비원의 업무가

대국민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돼 이번에는 정부가 공모제를 실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중립적 위치를 할 수 있는 학계에 몸담고 있던 자를 뽑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과 함께 비교적 젊다는 이유로 주류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기에 부담도 있지만 소비원의 집적인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가 오겠습니다.”

— 소비원에 대해 소개를.

“소비자 서비스기관으로서 상담업무를 비롯해서 소비자의 피해를 조사·연구해 언론이나 홈페이지, ‘소비자 시대’ 잡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유익의 사항 등을 알리고 제정 경제부나 유관 기관에 처리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중재하는 업무와 함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자 문화 창달을 위해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정혁신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셨는데 어떤 취지인지.

“87년 소비원이 창립한 이래 지금까지 활동과 업무 등이 크게 확장됐죠. 소비자의 인식도 상당히 달라져 국민의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비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비원은 ‘경영혁신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업무의 재평가 작업을 실시하고 개선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유해 12월말이면 어느 정도 위원회가 정립돼 본격적인 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원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소비원 목적에 맞는 역할을 완결히 수행할 수 있게 하자는 뜻입니다.”

— 여러 동문들께 한마디.

“서울대인이라는 네트워크는 저의 사회 활동에 많은 도움

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네트워크가 더 크게 확장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소비자관련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지고 우리들 개개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소비원을 더 많이 이용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마음으로부터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李원장은 통일리노아주립대에서 컴퓨터학 학사학위와 소비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수원대 조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자문위원, 대한가정경제학회

를 역임했다. (李)

를 역임했다. (李)

를 역임했다. (李)

를 역임했다. (李)

를 역임했다. (李)

를 역임했다. (李)

를 역임했다. (李)

를 역임했다. (李)

를 역임했다. (李)

서울대 가족

芮祥海 변호사

변호사·의사·검사 사위, 음악실력도 '프로'

“배사에 정직하고 正道를 걷는 삶 강조”

2003년, 芮祥海(58년 法大卒·변호사) 동문의 古稀 기념 행사장. 파워포인트와 슬라이드 쇼를 통해 芮동문의 인대기와 빛 바랜 가족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흥겨운 색소폰 연주와 클래식한 비올라 연주,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운 선율이 담긴 대금 연주가 이어졌다. 여는 7회 잔치와 더불어 바 없지만, 행사 기획자이자 엔터테이너(?)로 나선 사위들은 이벤트전문업체 직원들도 아니요, 게스트로 초청된 연주자들도 아닌 芮祥海동문의 다섯 자녀 내외였다.

3녀2남 중 맏이인 芮眞禧(86년 家政大卒·용인승당대학 영어과 교수)동문은 전방적인 행사 진행을 맡았고, 만사위 金志洙(85년 法大卒·변호사·술본 테리놀로지 고문)동문은 직장생활하면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색소폰을 연주했다. 둘째 사위 金炳謙(88년 醫大卒·BK성형외과 원장)동문 역시 의대오케스트라 단원시절부터 연미한 비올라를 연주했고, 셋째 사위 奉旭(88년 法大卒·대검찰청 부장검사)동문은 부인 芮眞延씨와 함께 취미로 배웠던 대금을 멋들어서게 선사했다. 또 차남이자 막내인 芮範洙(94년 法大卒·KTF Technology 기술기획팀)동문은 파워포인트를 비롯한 슬라이드쇼 등을 담당하며 완벽한 팀워크를 이뤘다.

“예나 지금이나 자주 모이고, 일을 꾸미는(?) 건 변함이 없어요. 다섯 자녀와 세 사위 모두 각각 두 살 차이이고 장녀(芮眞禧동문)와 둘째 사위(金炳謙동문)는 동갑입니다. 판사인 차녀(芮眞熙동문)와 셋째 사위(奉旭동문)는 여의도고 동창인데다 지금도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고 있으며, 다섯 자녀도 모두 여의도고 출신이라 서로 많은 점도 많고, 뭔가 잘 통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사위 셋을 내란히 세위보며 인경 켜 모습도 봤었고, 각각 변호사, 의사, 검사로



뒷줄 좌로부터 네 번째 芮範洙, 두 명 건너 奉旭동문, 앞줄 좌로부터 두 번째 金炳謙, 네 번째 芮祥海, 여섯 번째 芮眞禧·金志洙동문

芮祥海동문의 서울대 가족

장녀

芮眞禧(86년 家政大卒)

차남

芮範洙(94년 法大卒)

사위

金志洙(85년 法大卒)

金炳謙(88년 醫大卒)

奉旭(88년 法大卒)

알려만 몰두할 것 같지만 매우 가정적이예요. 집안 일, 아이들 교육에도 관심이 많다는 거죠. 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마지막 한 나이에 변호사가 됐으니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도, 그렇다고 남들에게 내세울 것도 없지만 다섯 자녀들이 한결같이 우에 있게 지내고 부부끼리도 격의 없이 자내는 것을 보니 그제 가장 보람되고 남 보기에도 좋지 않아서 살아요.”

넉넉지 않은 시간에서 자란 芮祥海동문은 ‘돌고 바른 길’을 걷고자 협회단위로 서울에 올라와 모교 법대에 입학, 10년간의 고학 끝에 고등고시에 합격했다. “판사 생활도 보탬했지만, 일흔의 나이에 변호사 활동을 하며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어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간을 갈 같이 지냈던 芮祥海동문은 가족들과의 오붓한 저녁식사를 위해 일 거라를 잔뜩 써서 집에 들어가는 게 일상사였다고 한다. “자녀들이 뒤에 관심이 있는 자, 학교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아내만큼 관심이 많았던 편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알려리를 집에 들고 와 자녀들이 잠든 뒤 서재에서 밤새 관검문을 읽곤 했죠.”

장녀 芮眞禧동문이 대학교수의 꿈을 이루는데는 남편 金志洙동문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다. 행정고시와 외부고시를 모두 합격하고 공직생활을 하던 金동문은 로스쿨을 가기 위해, 芮眞禧동문은 교수의 길을 걷기

위해 함께 유학을 떠났다. 金동문이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동안 두 아이까지 기르며 학위를 받아야 했던 芮祥海동문은 남편의 헌신적인 외조로 학업을 부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땀방자가 처음 들어와서 하는 말은 ‘다섯 명의 동생들이 생겨 무엇보다 기분 좋다고 하더군요. 자녀들도 큰오빠, 큰 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형제처럼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녀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만사위가 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차남 芮範洙동문 역시 부친의 뒤를 이어 법대에 들어갔으나, 컴퓨터에 남다른 재능을 발휘하면서 졸업 후 후문 IT저장소에서 활약해왔다. “뺏겼는 누가 안 챙겨줬도 자기 할 일 하며 알아서 커졌어요. 막내라고 더 관심을 두거나 그러지 않았죠. 법대생이 IT계통으로 가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조금 놀랐지만, 가족 중에 색다른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 이렇게 당부했죠.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최선을 다 하라구요. 지금도 자녀들에게 항상 배사에 정직하고 정도를 건으며 그저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합니다. 그게 제 인생관이자 가훈이기도 합니다.”

가족 중 유일한 이과 출신인 둘째 사위 金炳謙동문이 운영하는 BK성형외과는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병원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사고후 변형, 선천성 집합 환자 등 안면복원수술이 필요한 환자들도 많이 찾는다고, 특히 그는 BK장학재단을 설립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터넷 팬클럽까지 운영할 정도로 네티즌 사이에서도 유명인으로 통한다.

어릴 적부터 화술이 뛰어나 자연스레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셋째 사위 奉旭동문은 검정청에서 능력기 뛰어난 검사로 정평이 나 있다. 다른 사위들처럼 투철한 직업 의식을 가지고 있되 서점에서 가족나들이를 하는 독서관이자 취미로 부인과 영화를 보러 다니는 가정적인 가정이라고.

“30여 년간 일을 하면서 연구한 내용들을 책으로 한번 출간하고 싶다”는 芮祥海동문은 “세상엔 정말 다양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과 萬事成’을 오래도록 실천하는 가족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表)



좌로부터尹正一사범대 학장,金熙龍관악구청장,鄭雲龍총장,林光洙회장,李泰秀대원장.

세계 TOP 10 대학 진입, 국가 핵심인력 양성 요람

대학원 연구동 2단계 기공

모교는 지난 9월 15일 모교 鄭雲龍총장, 李泰秀대학원장, 본회 林光洙회장, 許璽사무총장, 金熙龍관악구청장 등 1백여 명의 교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원 연구동 2단계 신축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鄭雲龍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학원 연구동이 완성되면 모교는 명실공히 세계적 수준의 연구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세계 TOP 10 대학 진입에 이르기 위한 자기개혁과 혁신을 계속할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노력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林회장은 축사에서 "대학원 연구동의 완공으로 앞으로 국가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선도하는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기능을 더욱 강화한 연구중심 대학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외국의 유수 대학과 그 대학의 핵심인력

들이 모교를 벤치마킹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을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BK21 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건립되고 있는 대학원 연구동은 1단계 신축에 이어 이번에 2단계 신축에 들어가게 됐다.

최종 3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 모교가 연구중심 대학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뻔한 아나라 모교 교수 및 재학생들의 교육과 연구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교 소식

우수인력 채용박람회 개막

교내외 학생 5천여 명 참가

모교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지난 9월 13일, 14일 이틀간 모교 관악캠퍼스 체육관과 문화관에서 '2004 우수인력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모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외국계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약 1백50여 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교내외 5천여 명의 학생들이 몰려 이번 박람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화관 대강당 로비와 전시실에서는 일반 사무, 기획, 영업, 마케팅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채용을 원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우수기업관'이 열렸으며, 체육관에서는 이공계와 R&D 및 병역 특례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공계관'이 열렸다.

진로취업센터 송미령 조교는 "이번 행사가 학생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평가받았으며 앞으로 채용박람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3년도 모교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및 올해 2월 졸업생 가운데 군 입대와 대학원 진학을 제외한 순수 취업률은 45.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진로취업센터 이재경 전문위원은 "취업난에서 모교 재학생들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능동적인 설계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물관

'화가와 여행' 특별전

모교 박물관(관장 金英那)은 지난 9월 9일 모교 鄭雲龍총장,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安熙龍前모교 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 李健茂관장 등 교내외 인사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 세계박물관대회를 기념한 '화가와 여행' 특별전 개막식을 가졌다.

이날 金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전시회가 화가에게 여행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된 행사"라고 밝혔다.

10월말까지 열리는 특별전을 통해 조선시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가까지 화가들이 국내외 각 지역을 여행하며 화폭에 담은 아름다운 풍광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전시는 전통회화와 현대 미술 등 두 분야로 나뉘어 열린다.

전통회화 분야에서는 鄭敼, 金弘道 등 조선시대 유명 화가들이 상설여형, 즉 '유유(遊遊): 유유서 산수를 유람한다는 뜻'을 통해 그린 그림들,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묘사한 진경산수화 등 4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또 현대미술 분야에서는 '鏡子의 '경지' 강에서', 李健熙(53년 美大卒)의 '보르코의 비자 트라 신에서', 네덜란드계 미국인 화가 휴버트 보스가 구한말 서울의 모습을 그린 '서울풍경' 등 화가 16인의 작품이 소개된다.

골트 교수에 명예박사학위

의학교육 발전 공로 인정

체육교육과 남유선양

올림픽 수형 결선 진출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 새 역사를 창제한 모교 체육교육과 1학년 남유선(사인)양은 한국 수형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결선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8월 14일 아테네올림픽 여자 개인혼영 4백m 예선 경기에서 종전 한국신기록인 4분47초74를 깨고 무려 2.58초나 단축한 4분45초16으로 결선에 올랐다. 이어 결승전에서 7위를 차지함으로써 한국 수형의 오랜 숙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더욱 빛났다. 이날 모교 체육교육과 1학년 류운지 양도 함께 8강에 도전했으나 아쉽게 탈



동아일보 사진제공

락했다. 현재 내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남유선 양은 "4분 45초대의 기록을 4분40초대로 단축하고 자유형 8백m에 도전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

신임 인문대 학장에

국문과 權斗煥교수



지난 9월 9일 인문대학 학장에 국어국문학과 權斗煥교수(사인)가 취임했다.

신임 權학장은 1970년 모교 문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1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교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모교는 지난 9월 23일 모교 관악캠퍼스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모교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온 미네소타대 골트(Neal Gault Jr.) 명예교수(사인)에게 명예 의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골트 교수는 미국의 대표적인 의사가, 의학교육자이자 의료행정가이며, 의학계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의 많은 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국제 의학교육자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954년 9월 모교와 미네소타대 사이에 상호기술통조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골트 교수는 1959년부터 1961년까지 2년간 수석자문교수로 모교에 부임해 의학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번 행사에는 모교 鄭雲龍李賢宰전임 총장, 鄭雲龍총장, 李錫仁부총장, 李泰秀대원장,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등 교내외 인사 1백여 명이 참석했다. (후)

후학지도 노고에 감사합니다

정년교수 프로필

모교에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친 교수 14명이 지난 8월 31일 정년 유 맞이했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삶과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宋 丙 洛 교수

·경제학
63년 商大卒, 美남캘리포니아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 부교수로 부임해 공장거래위원회 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사장, 모교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차 淳 達 교수

·산업공학
62년 조선대 문리대 졸업, 美신시내티대 대학원 이하 박사학위를 받았다. 75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해 국제OR학회회교육위원회 위원, 미국 버클리대 교환교수, 한국경영과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회 위원, 미국 버클리대 교환교수, 한국경영과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趙 東 一 교수

·국어국문학
62년 文理大卒, 모교 대학원에서 문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87년 모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로 부임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집장, 일본 동경대 객원교수, 국어국문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韓 松 濤 교수

·전기컴퓨터공학
63년 工大卒, 모교 대학원에서 공학 석사 학위, 프랑스 로렌공대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68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해 대전전기협회장,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장, 모교 명예 학장 등을 역임했다.

한전기협회장,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장, 모교 명예 학장 등을 역임했다.



金 世 源 교수

·경제학
61년 法大卒, 벨기에 브뤼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71년 모교 경제학과 조교수로 부임해 한국경제학회장, EIT경제학회장, 국제경제학회장, 모교 사회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白 惠 鉉 교수

·법학
61년 法大卒, 美하버드대 법학 석사학위, 모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68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해 모교 대학

신문사 주간·교무처장·법대학장·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金 光 洙 교수

·역사교육
63년 師大卒,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연세대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89년 모교 부교수로 부임해 역사교육연구회장, 문

화재위원회와 모교 역사교육과 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蔡 禹 基 교수

·화학교육
65년 師大卒, 모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 美켄시스대에 석사 학위를 받았다. 84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해 유기화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해왔으며, 모교 화학교육과 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李 承 郁 교수

·의학
63년 醫大卒,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 부교수로 부임해 국제비뇨기학회 한국대표, 대한비

뇨기과학회 이사장, 모교 의대 학장 등을 역임했다.



權 赫 杓 교수

·치의학
63년 醫大卒,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72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해 모교 병원 보존과장, 의대 보존학교실

주임교수, 대한치과보존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金 鎭 培 교수

·치의학
62년 醫大卒, 모교 대학원에서 치의학 석사,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0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해 대한구강보건학회장, 국민

구강보건연구소장, 모교 치대 치악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차 允 源 교수

·치의학
62년 醫大卒, 모교 대학원에서 치의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67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해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장, 국제

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장, 모교 치대 학장보 등을 역임했다.



李 善 衡 교수

·치의학
62년 醫大卒, 모교 대학원에서 치의학 석사,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4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해 대한치과보존학회장·교무,

모교 의대 보철학교실 주임교수, 모교 병원 보철과장 등을 역임했다.



張 翼 泰 교수

·치의학
62년 醫大卒, 모교 대학원에서 치의학 석사,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0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해 모교 병원 치과치과분과 부

과 과장, 대한치과치과분과 학회이사, 대한치과보철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동경

수상



▲**金顯(52년)** 工大入·삼성종합기술원 회장=지난 9월 20일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열린 제1회 토아 데이북에 퍼스티픽에서 은상을 받음.

▲**金基賢(67년)** 行大院卒·롯데관광 회장·문화부회장=지난 9월 24일 관광부의 날을 맞아 여행업계 최초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음.

▲**朴善誠(69년)** 師大卒·삼성에너지 사장=지난 9월 16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4 대한민국 녹색경영 시상식에서 녹색경영부문 대상을 받음.

▲**趙基文(70년)** 文理大卒·외교통상부 장관=지난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대회에서 밴 플리트(Van Fleet)상을 받음.

▲**任志豪(74년)** 文理大卒·모교 물리학과 교수=지난 10월 11일 서울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 21층 강당에서 제18회 인촌상(자연과학부문)을 받음.

▲**馬孝燮(76년)** 工大卒·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지난 9월 16일 대한토목학회 제3회 최우수(학술부문) 수상자에 선정됨.

▲**安大熙(73년)** 法大入·미래검 중수부장·부산고교장=지난 9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9회 국제검사협회(IAP) 총회에서 대검 중수부의 대진자금 수사팀을 대표해 IAP특별공로상을 받음.

▲**李孝禧(98년)** 畜大卒·피리연주가·마미사 단원=지난 9월 15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WCO(세계문화오픈) 2004' 시상식에서 국악과 동문들로 구성된 '법사'팀이 예술문화 전통소리부문 경향상을 받음.

▲**李海東(86기 AIP·원인·사장)** 지난 9월 18일 대전 철도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철도의 날 행사에서 철도산업훈장을 받음.

▲**金順태(53기 ACAD·농부 대표)**=지난 9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생산성 혁신대회에서 프랜차이즈업계 최초로 리더십부문 산업자율부 장관 표창을 받음.

이동·선임

▲**孫一振(51년)** 法大入·한국일보 상임고문·문화상임부회장=2001년부터 2003년까지 경원대 겸임교수로서 강의를 해왔으나, 지난 9월 1일자로 경원대 초빙교수로 재임명됨.

▲**金壽善(56년)** 法大卒·코리어나 국제투자자문 회장=최근 Doran Capital Partners 社(인전 뉴송도시의 자유지회사) 상임고문에 선임됨.

▲**李大宇(57년)** 法大卒·前경원대 총장=최근 열린 한국대학총장 협회 이사회에서 제3대 이사장에 선임됨.

▲**孫德鎭(61년)** 文理大卒·모교 사회교육과 명예교수=지난 9월 13일 동덕여대 제6대 총장에 선임됨.

▲**玄昭憲(61년)** 文理大卒·前YTN 사장·동국대 객원교수=지난 9월 17일 인터넷신문 뉴스앤뉴스 제2기 대표로 선출됨.

▲**朴英賢(63년)** 慶大卒·고려대 교수=지난 9월 9일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장에 선임됨.

▲**金南勳(65년)** 法大卒·국민은행 상임고문=지난 9월 14일 열린 한국CFO협회 인사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金正重(65년)** 法大卒·前분회 회장·AMP 동창회장=지난 9월 1일 동·반역 전문대학원 서울의국어 대학원대학교 제2대 총장에 취임함.

▲**丁李奎(71년)** 文理大卒·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지난 8월 27일 대통령 외교보좌관(차관급)에 임명됨.

▲**李祐結(71년)** 法大卒·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지난 9월 20일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됨.

▲**趙東成(71년)** 商大卒·도교 경영학과 교수=지난 9월 7일 핀란드 정부로부터 한·핀란드 학술 교류와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주한 핀란드 명예연세에 위촉됨.

▲**梁天植(73년)** 文理大卒·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지난 9월 1일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됨.

▲**金貴煥(73년)** 藥大卒·한국한의학회구원 수석연구위원=지난 9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임명됨.

▲**趙重均(75년)** 文理大卒·주일본 공사=지난 9월 8일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관 대사에 임명됨.

▲**徐凡錄(75년)** 師大卒·前교육인적자원부 차관=지난 9월 8일 대한교원공제회 이사장에 내정됨.

▲**金凱煥(75년)** 新大號卒·한국관광공회 회장·중앙대 겸임교수=최근 공적거리위원회 표식관리 자문위원에 선임됨.

▲**李路炯(77년)** 師大卒·산업자원부 무역유통심의관=지난 8월 19일 산업자원부 무역부차실장에 임명됨.

▲**鄭弘晝(80년)** 人文大卒·경기대 교수=지난 9월 1일 문화재청에 임명됨.

▲**宋宗浩(80년)** 工大卒·한국인터넷정보센터 원장=지난 9월 20일 한국인터넷정보원·초대 원장에 임명됨.

▲**鄭 鎰(83년)** 自然大卒·삼보컴퓨터 기술고문=지난 9월 1일 삼보컴퓨터 부회장 겸 최고기술책임자에 선임됨.

2005년 DIARY를 발송해 드립니다

본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포켓용 DIARY'를 제작해 보내드립니다. 이번 DIARY는 동문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 Soft Cover를 사용함으로써 부피와 크기를 최대한 줄여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동창회 DIARY는 모교 발전과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 주신 동문께 11월 초순부터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2005년 乙酉年の 설과 구상을 새롭게 변신한 동창회 DIARY에 기재하여 보람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동창회를 사당해 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 동문동창회 사무처

▲**張明宇(89년)** 慶大卒·미국 네브라스카주립대 교수=최근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Merritt C. Pederson Professor in Dentistry of 최연소 석좌교수에 선임됨.

▲**金鍾煥(16기 AMP·前국회의원)**=지난 9월 10일 자진퇴임한 지기술 등의 연구를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전지산업회

정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됨.

▲**劉孝一(15기 ACAD·前비상기획위원의 사무처장)**=지난 8월 27일 국방부 차관에 임명됨.

▲**尹宗鉉(46년)** 京城醫專卒·서울 언론인클럽 회장=지난 9월 14일 한국일보 사 13층 총원룸에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함.

▲**丘仁煥(54년)** 師大卒·모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문화과 문화교육연구소장=지난 10월 2일 한국방송통신대 별관 새미

나실에서 '문학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함.

▲**李信子(55년)** 美大卒·여성여대 명예교수·무덕문화회장·미래동창회장=지난 10월 1~13일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

서 열린 'MANIN' 101 2004 서울 국제아트페어에 출품, 아홉 번째

개인전을 개최함.

▲**李吉女(57년)** 醫大卒·가천길재단 회장·문화부회장·외대동창회장=지난 9월 6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가천

길재단 뇌과학연구소 창립기념 세마니를 개최함.

▲**金澤東(59년)** 文理大卒·모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지난 9월 16일 삼성경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한국경제의 시스템 위기'와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함.

▲**李升煥(59년)** 法大卒·한국가스연맹 ICT2005 조직위원장은=최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국제 가스연맹

(IGU) ICT Task Force 3차 회의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IGU 총회에 참석함.

▲**俞東煥(60년)** 農大卒·한국농마사료협회장·수원지부총회장=지난 10월 6~21일 '21세기 희망창기 유망농촌 대장정'의 일

환으로 프랑스, 스페인, 독일, 스위스 등지의 농촌을 시찰함.

▲**李敬子(61년)** 美大卒·한국화 여성작가협회 회원=지난 10월 1~13일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MANIN' 101 2004 서울 아트페어에 출품, 여섯 번째 개인전을 개최함.

▲**李相禹(61년)** 法大卒·한림대 총장·문화부회장=지난 9월 21~22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대 의원들과 한

질화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함.

▲金成勳(62년) 農大卒·경상선 공동대표) = 지난 9월 21일 서울 경살연 강당에서 '퇴직연금제 평가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초청회를 개최함.



▲李承宇(63년)工大卒·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 지난 9월 7일 경기도 일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일본국토기술연구원 센터



(JICE)와 공동으로 제15회 건설기술 세미나를 개최함.

▲李炳均(64년)文理大卒·한국신문방송인클럽 회장·문화부장·문화본부 논설위원) = 지난 9월 8일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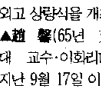


서 한국신문매체연구소 洪元基 소장을 초청, '신문의 위기 -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金恒熙(64년)法大卒·강남대 석좌교수·한국캐나다협회장) = 지난 9월 14일 서울 소파빌 연세대학교에서 마티우스 그라니우스 심암 주한캐나다 대사를 초청해 환영 오찬을 개최함.



▲安秉憲(64년)法大卒·한국외국어대 총장) = 지난 9월 3일 한국외국어대 용인 캠퍼스 부근 외국어고등학교 설립부지에서 부속



외고 상량식을 개최함.

▲趙 馨(65년)文理大卒·이화여대 교수·이화리더십개발원장) = 지난 9월 17일 이화여대 국제교육

관 ICG컨벤션홀에서 '여성적 가치와 여성리더십'을 주제로 개인전 1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함.

▲盧孝子(66년)美大卒·동양화가·삼상문화센터장사) = 지난 10월 8~21일 서울 신사동 청자화관에서 '꽃의 세상'을 주제로



제13회 개인전을 개최함.

▲金春玉(68년)美大卒·수목화가·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한국화여성작가회



장) = 지난 10월 1~10일 서울 교백소 2층 조선회관에서 '자연-관계성'을 주제로 제16회 개인전을 개최함.



▲金奉求(68년)嘉大卒·경원대 교수·버티튼) = 지난 10월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괴테, 하이든, 브람스, 드뷔시, 라벨, 김창식, 장일남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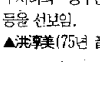
작품으로 독창회를 개최함.

▲金澤澤(70년)經大醫卒·양천장학회 이사장) = 지난 9월 11일 열린 양천장학회 제38회 장학금 수여식에서 고교생·대학생 총



11명에게 1천500만원을 전달함.

▲盧珠采(71년)嘉大卒·명지대 교수·테너) = 지난 10월 2일 서울 여의도동 영산아트홀에서 독창회를 열어 비제의 '신의 아린양',



푸치니의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등을 선보임.

▲洪孝美(75년)嘉大卒·경원대 강



사로 = 지난 9월 30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모차르트, 스크리야빈, 슈베르트 등의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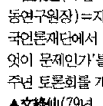
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함.

▲安孝英(75년)新大醫卒·시사저널 편집고문·한국비디오저널리스트협회장·본보 논설위원) = 지난 9월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하이 서울 VJ 영상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함.

▲朴明洙(76년)保大醫卒·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관악회 이사) = 지난 9월 15~18일 경주 협천호텔에서 개최된 제7차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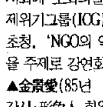


시아·태평양 금연대회에서 '청소년 흡연'에 관한 주제발표를 함.

▲崔榮起(77년)社倉大卒·한국노동연구원장) = 지난 9월 14일 한국언론재단에서 '한국의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월 16주년 토론회를 개최함.



▲文格仙(79년)嘉大卒·플루티스트) = 지난 9월 19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교향의 '차랑가', 마르타누의 '첫 소나타' 등



으로 독주회를 개최함.

▲鄭在清(83년)師大卒·모교 의교학과 교수·국제문제연구소장) = 지난 9월 23일 모교 관악캠퍼스 사회대 소회의실에서 파나 박 국제위기관리(ICG) 서울사무소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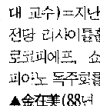


초청, 'NGO의 역할, ICG, 북한'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함.

▲金景愛(85년)美大卒·前경희대강사·形念회원) = 지난 9월 6~

12일 서울 인사동 광화문에서 '인간-토기'를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함.

▲朴惠卿(87년)嘉大卒·한영신학대 교수) = 지난 9월 25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하이든, 프코르파에르, 쇼팽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함.



▲金在美(88년)嘉大卒·전국대 교수) = 지난 10월 1일 일본 동경 Japan Times Hall에서 한·중·일 3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가 모여 제15회 Kishiko 국제교류 음악회를 개최함.

▲申根珍(91년)醫大卒·前대한의사협회장) = 최근 상남시 중원구 중동 수경빌딩에 '신상진의원'을 개원함. (연락처 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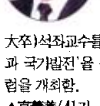


733-5599)

▲沈尹福(3기) AMP·삼익LMS 부회장) = 지난 9월 23일 중앙공전문대 강당에서 '디지털시대, 기업은 이런 사람을 원한다'란 주제로 특강함.



▲成完鎭(32기) AMP·대야건설 회장·충청포럼 회장) = 지난 9월 22일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룸에서 모교 黃萬鎭(77년) 鄭萬鎭



大卒) 석좌교수를 초청, '생명과학과 국가발전'을 주제로 제12회 포럼을 개최함.



▲高義善(41기) AMP·농우바이오 회장·경기도 새마을 회장) = 지난 9월 13~17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 아시



아·태평양 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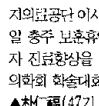
협회(APSA) 서울총회를 유치, 조직위원장으로 우리 나라 재소중자 산업의 위상을 드높임.

▲朴寬用(18기) ACAD·前국회의장·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 지난 9월 21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南應祐前국부총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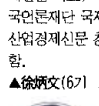


초청, '전환기 한국경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朴鍾模(28기) ACAD·한국보통국민의연금단 이사장) = 지난 9월 17일 충주 보훈유원지에서 국가유공자 진급향상을 위한 제11회 보훈의학과 화상대회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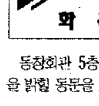
▲朴仁福(47기) ACAD·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한국산업경제신문 대표) = 지난 9월 23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산업경제신문 창간기념회를 개최함.



▲徐炳文(6기) AIC·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 = 지난 9월 22일 서울 역삼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문화산업대



미래 핵심인력 양성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동창회관 5층 관악에서 화축을 발할 동문을 소개한다.

※ 정재훈·최재경(95년 人文大卒) 씨 = 10월 16일 12시 30분.

※ 박재만(93년 師大卒)·이안나 씨 = 10월 16일 14시.

※ 최종선(94년 自然大卒)·문정은 씨 = 10월 23일 14시.

(정리 = 安興堂기자)

건강을 지키시다

우리 아이 교정치료 언제부터?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에게 '치과'란 '무시무시한 공포의 장소' 그 자체였다. 때를 쓰며 물든 아이도 "치과 가자"고 하면 울음을 푼 그쳤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을 정도니 말이다. 그러나 이제 치과는 아이들에게 소아과만큼이나 친숙한 곳으로 자리 잡았다.

어린이나 청소년 시절의 치아관리가 평생 치아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치과를 찾는 10세 전후의 아이들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교정치료의 대상이 되는 덧니, 반대교합 등 부정교합은 치열발육이나 성장과정 중의 문제일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장기에 주기적인 검진과 치료에 의해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치료장치와 의술의 발달로 교정치료의 연령제한은 사라지고 40~50대에도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부정교합의 유형별로 치료과정을 좀 더 쉽게 하고 치료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기가 있다.

예를 들어 아랫니가 왔나보다 앞으로 나오는 반대교합과 같이 턱뼈 성장에 문제가 있어 턱 성장조절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는 일찍 시술해야 한다. 성장이 완료된 후에는 성장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덧니와 같은 치열의 문제는 영구치가 모두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처럼 부정교합의 유형에 따라



李 靜 和
(91년 趙大宰)
웃는내일치과 원장

적절한 치료시기가 다르고 대부분은 여러 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의 눈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만 4세 정도가 되면 1년에 한번씩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시기와 순서를 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교정치료는 단순히 치열을 고르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치열이 고르게 되고 치열의 기능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저작 및 소화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영양섭취를 도와 균형 있는 성장발육이 진행될 수 있다. 덧니 때문에 잇솔질도 잘 되지 않아 잇몸염증이 많았던 경우는 치열이 가지런해짐에 따라 잇몸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 또한 얼굴의 외모가 개선되면서 성격이 긍정적, 적극적인으로 개선되고 자신감이 증가되어 대인관계나 성취도가 향상될 수 있다.

(연락처: 2051-2828)

가족 건강법

'핑퐁부부'로 불리며 아내와 탁구 즐겨

黃 環 植(70년 文理大卒)모교 철학과 교수·꽃미음 현형병원 이사장

아내(姜明淑·37기 HPM)와 필자는 비교적 남들이 쉽게 보인다면 비결이 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 편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답을 듣기도 전에 미리 그들 나름으로 이런저런 정답을 말하곤 한다. 아내가 한의사이니 인상, 녹용 등 그 좋다는 보약은 모두 진상할 것이라는 등, 대학생활과 시간을 보내니 젊은기를 받아서 그렇다는 등...

그들의 추측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실상 정답은 아니라고 응수하는 가운데 일부터 공공증을 자아내기도 한다. 사실 우리 부부는 의료업(서초동 꽃미음 한방병원)에 종사하고 있어서 그런지 남들이 많은 건강정보를 얻어듣거나 접하게 된다. 거의 매일 같이 건강식품업자들이 신제품을 들고와서 거머를 청하기도 한다.

우리 부부가 건강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것은 아내의 건강이 그리 좋지 못했던 30대 초반이었고, 그러니까 부부가 운동을 시작한 것은 이미 4반세기, 25년 가까이 된다. 그때부터 이날까지 우리 부부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6시가 되면 일어나 무슨 운동이든(탁구, 조깅, 워킹, 웨이트 트레이닝, 스트레칭 등) 전신이 땀을 흘릴 정도로 40분 내지 1시간 가량 하고 목욕을 한 후 아침식사를 하고서 9시경 출근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식생활에 있어서도 과식보다 소식을 선호하며, 육식보다 채식을 즐기고, 가능한 한 오랜 시간 식사를 하는 편이며, 5년 전부터는 우리 병원에서 개발한 생선이 과일을 곁들여 아침식사를 한다. 언제나 두 사람의 식사를 필자가 준비해 화장을

하는 아내를 부르곤 한다. 그리고 저녁식사 후에도 후식으로 찹쌀과 과일을 많이 즐기는 편이다.

담배는 젊은 시절 잠깐 맛본 다음 술은 과우지 않았고 술은 남의 눈치를 보며 제면상 미만하진 않을 정도로 절주하는 셈이다. 우리 부부는 25년

간 아침운동을 하면서 특히 탁구를 10여 년 정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쳐 '핑퐁부부'로 불리면서 대한매일 표지 전면 '병사들의 건강보감' 칼럼에 실린 적도 있다(사진은 신문에 게재된 것), 하지만 탁구스타일은 국제 측면에도 없는 우리만의 특이한 방식이다.

우리 부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후로도 이렇게 상아할 것이다. 평범하면서도 씩씩이 그렇게 말이다. 하나의 일세포가 20년째의 암세포로 돌아나온 발병하기까지 20여 년이 걸린다고 한다. 질병과 마찬가지로 건강도 만들고 지키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할 수 있다. 남들이 쉽게 보이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리 없지 않은가?

요즘 유행하는 웰빙은 원래 '잘 산다(well)'는 의미의 말이다. 그러나 진정 잘 살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단지 젊고 젊다는 것은 저급한 웰빙이리라. 몸도 쾌적해졌지만 평안한 마음을 위해 마음공부(명상)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하튼 티끌 모아 태산, 한리 걸도 한 걸음부터라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하자.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성격을, 성격이 운명을 만든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추억의 창

헌법학 '주권론' 시험 과반수 F학점 '충격' 영어문제엔 라틴어 알아듣는(?) 토끼 등장

黃 成 煥(59년 法大卒)前한국전력 외자부장

대학을 나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두 가지 시험을 잊지 못한다.

첫 번째는 입시시험이다. 1953년 휴전 이 되고 서울대학교에 원도해서 1954학년부터 신입생 입시를 서울에서 치렀다. 영어 과목 시간에 시험지를 펼쳐본 필자는 처음 문장을 읽어보다 그만 '허허'하고 작은 소리로 웃었다. 그 내용이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내용은 이렇다.

어느 대학생들이 사냥을 하기 위한 준비 모임에서 교수인 Mr. London을 동행할 것인가를 논의하다가 결국 그가 사냥을 마칠 때까지 조용히 할 것을 약속하면 동행하기로 했다. 드디어 사냥이 시작되고 얼마가 지나 토끼가 발견됐다. 학생들이 살금살금 다가가면 중 느닷없이 교수가 큰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라틴어로 '토끼

네'는 말이였다) 토끼는 도망가고 사냥은 실패했다. 학교에 돌아온 학생들이 Mr. London에게 왜 약속을 어겼느냐고 물었다. 뜻밖에도 Mr. London은 "아, 토끼가 라틴어를 알아들을 줄은 몰랐지"라고 했다. 지문은 여기서 끝났다. 하도 재미가 없어서 오래도록 놀리에 놀아 왔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부분적으로는 그럴 듯 하면서도 전혀 말이 안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지 않은가? 두 번째 시험은 1학년 1학기의 헌법학 시험이다. 헌법학의 첫째 논제는 '주권론'이다. 주권에 관한 통설은 우리가 고지 좁아 배운 바와 같이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韓泰鼎교수는 이런 거 다 헛소리



57년 졸로57가 연동교회 앞에서 법대 기독학생회 친구들과 함께 (왼대 필자).

라고 일축했다. 유럽 각국에 군주제가 물러가고 근대국가가 들어서면서 군주가 가지고 있던 국가의 절대권력에 대신해서 고안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독일 공법학자의 말을 인용해 '주권 개념은 政治權能이다. 실제로는 '힘'을 가진 세력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다스릴 뿐'이라는 것이다.

韓교수는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진국들이 비록 민주주의 체제를 취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행능력 부족으로 독재정치가 된다. 대한민국도 李承晚박사의

키리시마에 의지해 통치되는 일종의 독재 국가"라고 했다. 당시로서는 폭탄선언이나 다름이 없었다. "학박사 이후를 생각해 보라. 민주주의 체제는 유지되었지만 엄청난 역사가 이어질 것이다. 우선 정당이 힘을 쓰는 때가 올 것이니 그때 출세하려는 사람은 지금부터 정당 깃발 메고 다니다. 그러나 결국 특징의 조직 즉 종교 집단, 군대(쿠데타) 또는 공산당이 집권하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내 아이들은 지금은 잘 모를 것이. 먼 훗날 이러한 추억 속에서 이해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윽고 1학기 시험이 시작됐다. 헌법학 시험문제는 '주권개념의 정치성'이었다. 삼바 '주권개념은 허구다'라는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겠지 하면서 당시와 통찰대로 답안을 썼다. 원정 F학점이 나왔다 (1학년의 3분의 2 가까이 그였다). 이래서 모두 韓교수를 기피인물로 생각했다. 더구나 70년대 초 유신헌법을 기초한 정본인이라고 해서 모두 비판했다.

그러나 50여 년 세월이 지나면서 꿈금이 실패보니 그의 말이 하나하나 현실로 나타내지 않은가. 오늘날 우리 나라가 이 지경이 될 것을 그는 50년 전에 이미 예언했던 것일까?

신 간

법의학자의 눈으로 본 그림 속 나체 — 文國編 著



대한민국 예술원 정회원, 국제법의학회 한국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文國編(55년 韓大卒)교과대 명예교수)등문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림들을 그려진 인간의 나체를 살펴보면, 그 표현의 의미와 본질을 진지하게 탐구한 책.

이 책은 우선 '몸은 생명의 또다른 옷'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강한 생명력을 표현한 그림들을 살핀다. 또한 몸을 캔버스 삼아 그린 '문신 예술'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예담社·값16,500원)

補助劑 정신의학 문집 — 朴助烈 著



부산지역 정신과 치료계의 원로인 朴樹烈(58년 韓大卒·박조열선경정신과의원장·부산대 명예교수)등문이 의태생활 40여 년을 반추하며 그동안 등문이 써온 글들을 간추려 '박조열의 정신의학'이란 제목의 12책짜리 개인문집을 펴냈다.

이번 문집은 1권 청소년 그는 누구인가, 2권 어린이 정신건강, 3권 청소년 정신건강, 4권 대학생 정신건강, 5권 건강은 마음 속에 있다, 6권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길, 7권 노령자를 돌보는 길, 8권 이 세의 의사, 9권 醫術과 내일의 의사, 10권 정신의학의 본질, 11권 환자의 의사의 상전, 12권 웃는 사람 우는 사람 등으로 구성돼 개인의 정신건강을 통해 밝고 명랑한 사회를 지향해가는데 필요한 작은 자해들이 담겨 있다. (도서출판 국제재·값 각 권 9,000원)

Elites and Political Power in South Korea — 安東萬 著



한국의 국어대 安東萬(64년 法大卒)총장이타국에 비해 독특한 행정체제를 갖춘 한국 정부와 한국 정치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전문서를 펴냈다.

안동문은 이 책을 통해 지배사이에 대한 정치개혁, 정당, 엘리트의 공헌에 대해 분석했다. 전 통치회의 정치문화로부터 영향받은 현 한국 정부에 대한 이해를 돕

기 위해 선거, 지배자 특성, 정부구조, 엘리트의 반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밝혔다.

또한 중앙행정과 지방행정, 재계 산하조직 및 입법부와 집행부간의 권력 균형에 대해 논술했다. (Edward Elgar Pub·값1백20달러)

화살과 노래 — 李朝顯 著



한국 영어영문학회 상임이사, 한국 말번 학회장을 역임한 화가 겸 시인인 李朝顯(64년 師大卒)교수가 30여 편의 작품으로 세 번째 수필집을 출간했다.

원로 수필가 皮千得교수의 추천사가 담겨 있는 이번 수필집에서 李동문은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쉽게 접하게 되는 사소한 일상이에서부터,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거창한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한글문화사·값8,000원)

서비스@유비쿼터스 스페이스 모바일 비즈니스 — 吳在寅 著

단국대 상경학부 교수인 吳在寅(80년 經總大卒)등문이 최근 두권의 책을 펴냈다. '서비스@유비쿼터스'는 새로운 유비쿼터스의 포지셔닝 플랜

공연

鄭玲安 첼로독주회 — 10월 17일 예술의 전당



스위스 제네바 국립음악원, 위리히 국립음악, 뉴사실 국립음악원에서 수석한 첼리스트 鄭玲安(96년 韓大卒·올림픽대 동양강사)등문이 독주회를 개최한다.

鄭동문은 이번 공연에서 프레스코발파의 '토카타', 슈만의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op.70',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 5번 C단조'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386-0945)

신문사·값12,000원/삼영사·값13,000원)

프랑스어 발음연습 — 金眞秀 著



서경대 유럽어학부 金眞秀(85년 大學院卒)교수가 펴낸 프랑스어 발음 연습서. 프랑스어의 발음을 체계적으로 연습해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이 책은 현대 프랑스어에 사용되는 여러 소리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철자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정확하게 발음하고 청취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삼지사·MP3용 CD 1매 포함·값12,000원) (정리=安東萬기자)



The u-Matrix를 소개한 책. u-Trade, u-Hub, u-Care 등의 서비스군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담고 있다.

'모바일 비즈니스'는 모바일 비즈니스 모델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물론 The 2x2 Matrix와 4가지 유형인 Mobile Care, Mobile Support, Mobile Trade, Mobile Hub를 독점적으로 개발하고 관련 사례들을 적절히 안내했다. (전자·

동창회보 읽기

현신·봉사하는 동문 발굴에 힘쓰길

부 사에 사는 필자로서는 매월 발행되는 동창회보를 읽는 시간이 오랜만에 서울대인으로서의 정체감을 느끼는 순간이다. 그런 가운데서인지 매월 찾아오는 동창회보를 꼼꼼히 읽게 된다. 언제부턴지 지면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전면에 컬러화되면서 화려한 느낌을 주고 편집도 조금은 세련된 것 같다. 그러나 내용 가운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 지적해 보고자 한다.

매 회보마다 '서울대 가족'이란 코너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분들의 단순한 가족자랑이 아닌 사회활동에 부합하는 자원봉사나 동문들의 자발적으로 내세운 헌신, 기여도가 충분한 활동과 소개의견을 위해 노력

하는 헌신적인 동문들을 발굴해 재학생이나 동문들 모두 보람을 볼 수 있는 분들을 더욱 많이 알렸으면 한다.

그 좋은 예로 黃興龍교수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과학자에게도 조국이 있다고 당당히 말하는 黃興龍교수로 인해 서울대 동문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만들어 준다. 세계 최초 인강배아(胚芽) 줄기세포 배양 성공으로 외국에서 큰돈을 연구비로 주겠다는 제안도 거부하고 우리 나라의 소독 2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는 21세기 생명공학 혁명을 일으킬 데 혁신적 연구가, 온 서울대 동문들에게 그분의 삶과 정신, 연구 업적 등을 상세히 보도해 주었으면 한다. 바이오이종 장기이식 대 개막과 세포치료에 의한 난치병



曹慶鍾
(80년 獸醫學大卒)
부산의료보정조정부
심임대표

개발 등 생명공학기술 분야를 우리 나라가 선도하기 위해 공휴일도 반납한다는 黃교수님과 연구진들의 열의와 열정을 높이 평가해 주

리 모두 박수갈채를 보내도록 하자.

'서울대 폐교'라는 발상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가. 한 나라의 기틀을 교육이라 하지 않은가. 어느 나라에 대해 편견화가 있는가. 그러나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수들의 과학적인 대우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교수의 마음가짐, 즉 가르친다는 사명감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제자들의 능력을 세게 제일로 향하게 하는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마음가짐이 요구되는 것이다. 아무런 세상이 달라지기로써나 장려하고 키워나가야 할 한국 제일의 서울대학교에 대해 폐교라는 엉뚱한 말이 다시는 언급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국가경쟁력이 잠실히 요구되는 이때, 서울대 동문들은 서울대가 영원히 존속해 나가도록 발돋움할 수 있는 힘을 길러보자.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자!

졸 업한지 30년이 지난 지금, 동창회보는 잊고 지냈던 하층시절을 잠시나마 떠오르게 해주는 오래된 음악과 같은 것이다.

옛것에 환경모임의 일로 안면도를 다뤘었다. 꽃지 해수욕장의 일몰은 정으로 장편이었다. 황금빛 바닷물의 출렁임과 꽃바다의 하늘, 그러면서 서서히 아들을 받아 내리는 저녁 빛들은 무한한 감동을 주는 청정현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들은 과연 언제까지 거만히 누릴 수 있을까? 농가정화과를 다녔던 70년대에는 환경문제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다. 마음껏 수원 캠퍼스를 누비며 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연습원 새벽기도를 통해 이 나라를 사랑하고 농촌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 후 직장생활도 하고 결혼도 해 농촌을 배경으로 한 춘추, 한경도 곁에서 아더도 끝을 잇는 일직선상 한 가운데에 자리한 중심점

을 중원의 땅에 자리잡지 않은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80년대 중반 춘추들이 생기고 수도권은 한강을 따라 비탈로 커져서 지금에 이르렀고 춘추를 비롯한 한강 상류 지역 사람들은 개발 제한과 규제로 점점 살기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작년 경우 1년 동안 큰 먼 단위 하나인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사를 갔다.

80년대 말부터 땅값이 치솟아 산골짜기까지 파헤치고 전국에 온천을 파서 난리를 치던 그 때, 이곳도 예외는 아니어서 단 전강(남한강 지류) 상류에 문장대, 용화은전을 개발하려는 무기론들과의 싸움으로 이 연악봉(7) 원자까지 환경운동에 뛰어들어 10여 년의 지루하고도 긴 싸움 끝에 승리하는 길কে 맞닥뜨리고 달천강에 오염도 막게 됐다. 그 후 소 잃고 후손을 해명하는 연습원의 새벽하늘과 이슬을 떠올렸다. 태양의 뱃줄처럼 나의 내면 의식 속에서



朴恩熙
(74년 農大卒)
충주환경운동연합 고문

농대생, 뽕은 살아 있어서 수많은 자양분을 내게 끊임없이 공급해줬다. 필자가 만일 농대생, 농가정화를 나오지 않았다면 그렇게 심각하게 환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다. 나의 의식은 늘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원천인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차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산 남어 산이었고 지금 춘추엔 또

하나의 커다란 환경 파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춘추의 보물인 탄금호(남한강)에 커다란 다리를 써서 탄금호를 문으로 토막내고 원본 3대 신성한 보물 중 하나인 칠지도를 만든 칠생산지로 추정되는 석고지와 舊金生유지지를 훼손하는 괴물 같은 국도대체 우회도로이다.

환경단체와 주민은 물론 문화재청과 원주지방환경청도 노선변경을 요구하는데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아, 하늘, 이 땅이 이렇게 상처가 나서 신음하면서 언제까지 우리 인간들에게 자비만 베풀겠는가? 정말 인간들이 이렇게 모란해도 되는 건가?

졸업한지 30년, 이제는 농대 캠퍼스도 옮겨졌고 농가정화도 없어져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많은 인재를 양성해서 좋은 세상,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큰 기둥이 되는 모교가 되기를 기원한다. 현실적으로 한 가지 더 비관하면 공기 좋고 물 좋은 이 춘추로 서울대 전체가 이사 와서 중원의 정기를 받아 세계 제일의 대학교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소프트한 문화기사가 많이 실었으면

동 창회가 있는데조차 몰랐던 나에게 언제부터인가 동창회보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내 직장수습을 어떻게 알고 오는 거지? 필자가 근무하는 EBS에 도 서울대 선배들이 몇 명 있는데 그 분들에게도 오지 않는 회보가 나에게 오는 것이다. 그 중에 한 선배가 '야 회보이니, 동창회보 내나 보내' 회보가 나에게 날아오. '그저는 게 아닌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졸업한지 5년 동안 한번도 회보를 낸 적이 없다.

솔직히 고백하는데, 동창회보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일간지, 주간지도 대충 훑어보는 동창회보를 제대로 읽을 리 없다. 그런 필자에게 글 창작이 들어왔고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 때문에 떠맡듯이 쓰셨다고 답했다.

회사에 모이는 회보가 없고 이 달 회보가

도착하지 않아 우선 춘추동창 홈페이지로 들어가 회보를 봤다. 글을 읽어보기도 전에 회보에 접근하는 시스템에 불편함을 느꼈다. 예를 들어 316호 315호 동원코너의 글을 클릭하고 바로 이어 315호 동원코너의 글을 읽어보면 또 다시 장을 띄워야 했다. 하나의 창에서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좋겠다.

매월 뒤 도착한 회보를 찬찬히 읽어보았다. 교육관련 프로듀서로 있어서인지 해외 대학 교육정책 관련 좌담회 기사가 우선 눈에 띄었다. 그런데 읽다 보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았다. 한 페이지 정도로 줄여 핵심만 담아서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 '동문기자 취재수첩'이란 코너를 읽게 됐는데 언론계에서 일하는 비수하인령대 동문의 글이라 친근감이 느껴졌다.

'학제의 동문'은 사진 때문에 눈길이 갔



孫熙俊
(00년 社會大卒)
EBS 다큐제작팀 프로듀서

다. 그리고 보니 수요일수업대란 TV프로 그램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다. '이 분이 우리 동문이었어?' 하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동창회보의 타겟(target)이 50~60대 선배들이겠지만 이런 소프트한 문화기사를 조금 더 많이 다루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다.

'동창회보를 읽고'란 코너를 쓰기 때문에 그 꼭지도 눈여겨보았다. 丁淑文선배님의 글을 보면서 한참 동안 웃었다. 회비 납부자 명단을 제법 재미있게 읽는다! 그 덕에 나도 회비납부자 명단을 찬찬히 훑어봤다. 혹시 사뭇해 출신 가운데 필자가 아는 사람이 있을까 했지만 역시 없었다. 조만간 나라도 내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편집에 대해 소견을 말하자면 중간 제목도 시원하게 달고 이미지도 과감하게 썼으면 좋겠다. 학교 다닐 때 배우기를 원했어 인줄처럼나 귀찮은 사용은 세로형 편집에서 많이 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씩 개선해야 된 부분이 아닌가 싶다.

쓰다보니 칭찬은 없고 비판만 한 것 같아 조금 계면된다. 하지만 동창회보가 좀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했음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서울대인으로서 조금 더 많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다짐해 본다.

▲이병호② ▲이성희② ▲이석준②
▲이덕② ▲이광희② ▲최기찬②
▲정광일② ▲전재현② ▲최경환②
▲홍경지② ▲홍미희② ▲황병준②
▲ACAD ▲김경희② ▲김경배②
▲김수봉② ▲김연수② ▲김정환②
▲김인준② ▲박관석② ▲안요환②
▲유재현② ▲유윤환② ▲이건우②
▲이병철② ▲영희② ▲이무재②
▲이재현② ▲이종민② ▲이희하②
▲전덕택② ▲정영환② ▲정용민②
▲허 건② ▲황교선②
▲AFP ▲황광희② ▲곽두준②
▲류광덕② ▲이계훈② ▲이성희②
▲이준희②
▲SGS ▲김갑수② ▲정종수②
▲한상용②
▲APC ▲백경택② ▲김종현②
▲박종택② ▲배영준② ▲이 용②
▲전관석② ▲황수경②
▲HPM ▲성은주② ▲김병수②
▲김태수② ▲김태영② ▲성지용②
▲송장진② ▲유창환② ▲유기우②
▲이무현② ▲이성준② ▲이우석②
▲이종환② ▲이충태② ▲정진구②
▲조광자② ▲조용선② ▲하경근②
▲홍의표②
▲AMPP ▲김철민②
▲AIC ▲고석익② ▲구호환②
▲김태희② ▲민정훈② ▲박희성②
▲배석우② ▲유석희② ▲유성익②
▲신병태② ▲서광환② ▲유기우②
▲이영길② ▲이영훈② ▲최태수②
▲홍자익② ▲황규진②
▲AFB ▲이원주② ▲정성모②
▲최경기②
▲AMFR ▲김성호② ▲김철성②
▲류두연② ▲매시훈② ▲신성호②
▲유연호② ▲이영희② ▲이기홍②
▲이병환② ▲임갑희② ▲장원석②
▲정우환② ▲정봉선② ▲최규환②
▲최희철②

원 계 : 40,550,000원
원생회비 : 42,760,000원
입 호 비 : 3,960,000원
총 계 : 960,299,792원
+ 2,000 \$